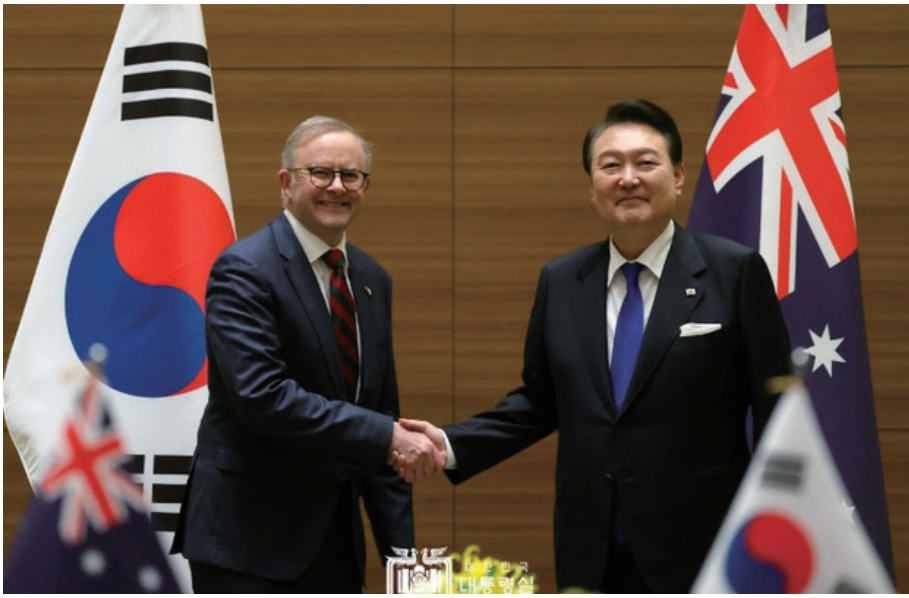


## 윤석열 대통령, 한-호주 정상회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5.19일 오후 5시 30분 앤소니 알바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호주의 관계가 2021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역내 평화를 증진하는데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호주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인태 지역의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아가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방,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다음 주 호주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앞으로 양국이 함께 참여하는 역내 군사훈련 횟수를 늘려나가기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인태 지역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작년 6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서, 양국의 우호관계는 물론 정상간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최광수기자

## 경기도 인구 1,400만 돌파. 전국민의 26.6%가 경기도에 산다



- 2023년 4월 현재 경기도 인구 1,400만 명 돌파(전국 대비 26.6%)
- 주민등록인구 1,360만 7,919명 + 등록외국인 39만 5,608명 = 1,400만 3,527명 경기도 거주
- 2002년 인구 1천만 명 돌파한 후 20년 4개월만
- 자연적 인구 증가보다는 다른 지역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

2023년 4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인구(내국인+외국인)가 사상 최초로 1,400만 명을 돌파했다. 2002년 12월 말 인구 1천만 명을 돌파한지 20년 4개월, 2016년 8월 말 1,300만 명을 넘긴 지 6년 8개월 만이다.

21일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와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1,360만 7,919명, 등록외국인은 39만 5,608명으로 총 1,400만 3,527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 기준 국내 총인구 5,264만 5,711명의 26.6%가 경기도에 사는 셈으로 서울 인구(967만 명)의 1.4배가 넘는다. 경기남부에 1,038만 4,604명(74.2%), 북부에 361만 8,923명(25.8%)이 살고 있다.

경기도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은 시점은 2002년 12월 말로 2023년 4월까지 20년 4개월 동안 4백만 명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는 2003년 12월 말 1,036만 1,638명의 인구를 기록하며 서울시 인구 1,027만 6,968명을 처음 추월했다.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한 1967년과 비교하면 1천1백만 명의 인구가 늘었다. 1967년 말 당시 경기도 인구는 307만 797명이었기 때문이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22만 6,735명, 용인시 109만 2,738명, 고양시 108만 9,934명 순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이 4만 2,769명, 가평 6만 3,005명, 과천 7만 9,133명 순으로 시·군 간 인구 격차가 컸다.

경기도의 인구 증가는 출산 등에 따른 자연적 증가보다는 다른 지역의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의 자연적 증가 인구는 15만 8,402명 이었지만, 사회적 증가 인구는 91만 7,311명으로 75만 8,909명 차이가 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는 99만 명대의 인구 유입이 있었고, 서울 77만 명, 부산, 대구, 경북, 경남으로부터 각각 3만 명대의 전입이 발생했다. 반면 동일 기간 인구 유출은 7만 명대에 불과했다. 2016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도 내 시·군별 내국인 수 증가 지역은 화성 30만 5천 명, 하남 13만 5천 명, 김포 12만 9천 명, 평택 12만 4천 명, 시흥 12만 2천 명 순이다.



인구 1,400만을 돌파한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산업, 경제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창업기업 수' 규모는 대한민국, 프랑스, 터키에 이어 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 규모는 (수출·수입 포함)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21위, GRDP의 경우 4,445억 달러(2021년 기준)로 OECD 국가와 GDP

로 비교 시 23위 규모로, 노르웨이(24위)와 이스라엘(25위)보다 앞서는 등 한 국가 이상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인구 1,400만 시대를 맞아 복지 및 경제 등 기회수도 경기도,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 지자체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으로 우주강국 대한민국 도약 지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8일 오후 2시 30분 고흥군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와 현안회의를 가지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성공조성 방안과 전남의 도약을 위한 성장거점 및 교통인프라 현안과제를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난 3월 지정한 고흥 국가산단을 국내 유일

의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민간 기업이 모여 개발, 시험, 평가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혁신의 장으로 조성하고, 전남(발사체)-경남(위성)-대전(R&D)으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하여 대한민국을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산단 계획, 원스톱 인허가, 선도기업 유치 지원 등 산단의 성공 조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전남-고흥의 긴밀한 협력 속에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을 빠르고 내실 있게 조성하여, 전남-경남-대전으로 이어지는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완성하고, 대한민

국이 우주시대로 하루 빨리 나아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가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신 만큼, 고흥군과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전속력으로 추진

하고,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장애요인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편리한 교통, 쾌적한 주거 환경, 교육·문화여건 조성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수한 기업유치와 인재확

보가 어려운 만큼, 국토부가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기업유치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5월22일 본사 사령 호남 본부장 박종배**

www.k-oceans.co.kr

##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Korea Oceans and Fisheries EXPO 2023

5.31수-6.2금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주최 | 경상북도 | 경주시 | 주관 | mire | 원동해산업연구원 | exco | 후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 산업의 미래

명품 '붉은 대게' 먹고 가시'게'~

명품 '붉은 대게' 매일 1,000마리를 무료로 즐겨보세요!  
 참여 : (사)경북붉은대게통발협회  
 수량 : 매일 1,000마리 (행사기간 중)

토속 관상어 전시

여러 종의 관상어 구경하고 금붕어도 무료로 분양하세요~

★ 참관 포인트

신선한 수산물·수산 식품을 한자리에서!  
 - 내고향 수산물 판매전, 수산식품 시식행사, 간편식 모음전 등

바다와 만나는 시간!  
 - 해양수산 체험관, 토속어류 / 민물고기 특별관, 귀어귀촌 / 어촌특화 특별관, 해양헬스케어 특별관, 해양환경 특별관 등

올해 여름 휴가 준비, 해양수산엑스포에서!  
 - 해양·수상레저 특별관(요트, 보트, 제트스키), 지씨체 관광지 등

해양수산 전문가 초청 포럼·세미나  
 - 구매상담회, 해외 수출 상담회, 기술 시연회 등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 사무국  
 문의 | 053.601-5256



#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반기 비교견학 실시

## 2일간 전주시 도서관 및 어린이창의체험관 등 방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승겸)는 지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전주시 도서관 및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한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비교견학은 김승겸 위원장, 김순이 부위원장, 이관우·최선자·김명숙 위원, 의회 사무직원 등 10여 명이 함께했으며, 권역별 도서관 및 고덕국제신도시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에 앞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자 추진됐다.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차인 17일 덕진공원 내 아름다운 한옥도서관으로 건축된 연화정도서관, 전주시 최초의 시립도서관이자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한 금암도서관, 도서관의 틀을 깨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등 3개 도서관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항상 정숙해야 한다는 도서관의 기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관광·여가·교육·예술 등 다양한 기능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시의 도서관 설립 및 운영 방식에 주목했다.

2일차인 18일에는 쌍방 소통형 전시물들로 꾸며진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체험관 곳곳에서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체험시설 및 공간 구성과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김승겸 위원장은 "전주시의 우수한 도서관과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평택시에도 다양한 우수 사례를 접목해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 강화 위한 조례 제정

##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나 의원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부대공사라는 인식이 많아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등이 기재된 표지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체공사 현장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위험한 해체 작업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안전조치 이행기록부 작성 등에 관한 내용도 마련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건축물, 가스, 급수, 전력 등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조례 제정으로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 관계자 및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제11회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23) 방문

## 멕시코에 28개국 453개 사 1,742개 부스 규모의 전시행사 및 특별관 등 순회 방문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위원장과 황석철 의원은 19일 제11회 부산국제기계대전(BUTECH 2023)에 참석해 본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전시장을 순회했다.

부산국제기계대전은 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국내 최대 기계산업 종합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기계대전은 부산시와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및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이 공동 주최, 한국산업마케팅연구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상공

회의소 등이 후원하며, 28개국 453개 사 참여하여 1,742개 부스 규모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해운대 벅스코(BEXCO) 제1, 2전시장에서 개최된 것으로,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디지털 전환에 맞춰 지역 기계 관련 제조기업의 해외시장 수출 판로개척과 내수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운영된 데 크게 의의가 있다.

이번 행사는 크게 ▲전시분야(BUTECH) 국제기술전, 국제공장자동화기전, 국제금형산업전, 국제

용접·공구산업전, 국제환경산업전, 국제부품·소재산업전 ▲학술행사 ▲기업지원 행사 ▲수출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등으로 구성됐다.

김광명 위원장은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과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에도 기계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로 부산이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역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전했다.

송종진/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간담회 통해 어려워진 화훼농가 살리기 방안 모색

## 용인특례시 화훼농가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9일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위치한 남사읍주민자치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용인특례시 화훼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하여 방성환 부위원장, 서광범 의원, 김영민 의원, 이문무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 이종필 용인특례시 농업정책과장, 조성민 용인특례시 화훼협회 회장 등 18명이 참석하여, 용인특례시 화훼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및 가격안정을 비롯해 수요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반려식물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화훼농가는 꽃을 키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담되는 생산비에도 난방을 멈출 수가 없으며, 최근 가스·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인상에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우리 화훼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위로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화훼농가의 현장에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녹색문화도시 수원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

## 5월 19일, 일월수목원(장안구), 영흥수목원(영통구)'수원수목원'으로 동시 개장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5월 19일 장안구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수원수목원 개원식에 참석해 수원특례시가 녹색문화도시로 성장해가도록 의회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안구 일월수목원과 영통구 영흥수목원은 2020년 착공하여 2년 만인 2022년 준공했으며, '23년 3월 임시개장하여 시민들을 만나고 있었다.

김 의장은 수원수목원 정식개장을 앞두고 지난 5월 11일, 일월수목원을 방문해 개장 준비 상황을 사전 점검한 바 있다.

일월수목원은 장안구 천천동 일월공원 내 10만 1500㎡ 규모로 조성됐다. '생태랜드마크 수목원'으로 식물수집과 연구, 생태 보전, 생태 교육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2천 16종의 식물을 만나볼 수 있다.

영흥수목원은 영통구 원천동 일대 지형과 자연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여 총 규모 14만 6000㎡로



조성됐다. 1,084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다양한 숲의 모습을 즐길 수 있다.

김 의장은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이 도심형 수목원으로 수원의 서쪽과 동쪽에서 동시에 개장함으로써 수원시 어디에서나 수목원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하며 "10년 후 더 쾌적한 녹색문화도시 수원을 만날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지켜나가는 데 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 천안시의회 이병하 시의원, 위탁사무의 공익성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 위탁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이병하 천안시의원(나선거구 - 신안동, 중양동, 일봉동)은 위탁사무 운용과 관련해 외부전문가와 담당 부서가 참여하는 자문 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당 조례 제정 및 개정 등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의 다각적 검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병하 의원은 천안시 공공기관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통제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참석한 전문가 및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자치제도에 상 필요한 사무위탁의 추진안 및 방향성 등을 확인하고 의견을 모으는 데 동참했다.

최근 시민들의 불리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이 늘어나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행정사무 외에 공공기관에 위탁되는 사무가 증가하는 추세다.

위탁사업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맞지 않는 방만한 운영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지적돼왔다.

이병하 의원은 "천안시 행정사무 위탁 조례에 관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부서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논의된 조례개정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천안시민을 위한 올바른 자치단체 행정사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호/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나랑 도자기 보러가지 않을래"란 주제로 19일부터 10일간 개최돼



# 제21회 경주 도자기축제

경주시는 지난 19일(금)부터 28일(일)까지 10일간, 경주 황성공원 실내 체육관 광장 일원에서 "나랑 도자기 보러가지 않을래"란 주제로 제21회 경주도자기축제가 막을 올렸다.



2023년 5월 화사한 봄의 축제가 열립니다

## 경주도자기축제

2023. 05. 19. (금) ~ 28. (일)  
경주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광장

아름다운 도자예술을 만나고 다양한 꿀팁 체험까지!

경주시는 지난 19일(금)부터 28일(일)까지 10일간, 경주 황성공원 실내 체육관 광장 일원

에서 "나랑 도자기 보러가지 않을래"란 주제로 제21회 경주도자기축제가 막을 올렸다.

이번에 펼쳐지는 제21회 경주 도자기축제는 경주의 우수한 도자기 상품의 전시·시연을 통해 영세한 공예 업체의 작품과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 및 연결하여, 판로를 지원함과 동시에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경주 도자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자기

문화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도예인들의 소득 창출에도 큰 도움을 주고자 개최하게 됐다. 특히, 축제 다음날인 지난 20일 오후 14시 30분,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경주시의회의장 등, 주요 내빈들과 수많은 관람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무대에서 개막식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은 식전행사에 이어 개막선언, 국민의례, 도예가협회장 개회사, 주낙영 경주시장 축사, 이철우 경주시의회의장 축사, 테이프 컷팅, 부스참관, 기념서문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낙영 경주시장은 축사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마스크를 벗고 시민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되니, 한없이 즐겁다"면서 "이번 「나랑 도자기보러가지 않을래」란 주제로 개최되는 도자기 축제는 찬란했던 신라 도자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도예가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빚어낸 훌륭한 작품을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또한, "도자기와 도예는 전통문화로 지켜가고 있는 보물 중 하나로서 이번 축제를 통해서 이런 보물들을 만나보고 다시 한 번 마음에 되새겨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하루하루 바쁜 일상은 잠시 잊고 작품들을 감상하시다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이 되실 것이기에 가정의 달 5월, 가족, 연인, 지인끼리 축제장을 방문하여 보고 마시고 즐길 수 있

는 체험 위주로 준비된 이번 축제를 재밌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1회 경주도자기축제는 경주도예가 협회가 주관하며,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후원으로 도자기 업체 40개를 포함 55개 업체가 축제에 참가한다.

특히 이번 축제는 경주 도예가 협회 작가 등 50여명이 빛은 신라토기부터 청자, 백자, 현대자기까지 전통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양한 도자기를 만날 수 있다. 이번 축제는 ▲먼저 행사기간 동안 매일 경주 도예가협회 회원들이 40곳 부스를 차려 도자기 전시 및 판매행사를 실시하며, ▲어린이 다도대회(20일), 한가족 도자기 만들기 대회(21일), 어린이 도자기만들기 대회(27일)를 개최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유도하며, ▲초별구이 그림그리기, 물레성형체험, 흙뭉치 찰흙만지기 체험 등 체험행사, ▲그리고 문화공연으로 차문화행사, 무대공연(버스킹 등)으로 치러진다. ▲특히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될 도자기 할인 이벤트인 '만원의 행복전'은 방문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번 축제의 기본 컨셉은 ▲프리미엄 전시관을 개관해 경주지역의 명장 및 협회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경주지역 도자예술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작가들과의 교류와 화합으로 도예발전을 도모하는 장을 만들고, ▲경주디자인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홍보를 위해 '물레 시연'과 '핸드페인팅 체험'을 함으로 학생들이 도자예술을 계승할 수 있고 도자기를 이해하는 창의적인 도예디자이너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 다도대회를 통해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요즘 어린이들에게 다도의 기다림과 차를 마시면서 다른이들과소통 및 어우러짐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이번 대회를 주최하게 됐다.

또한, ▲초별도자기에 그림그리기 체험을 통해 나만의 특별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및 다문화가족 행사를 통해 자칫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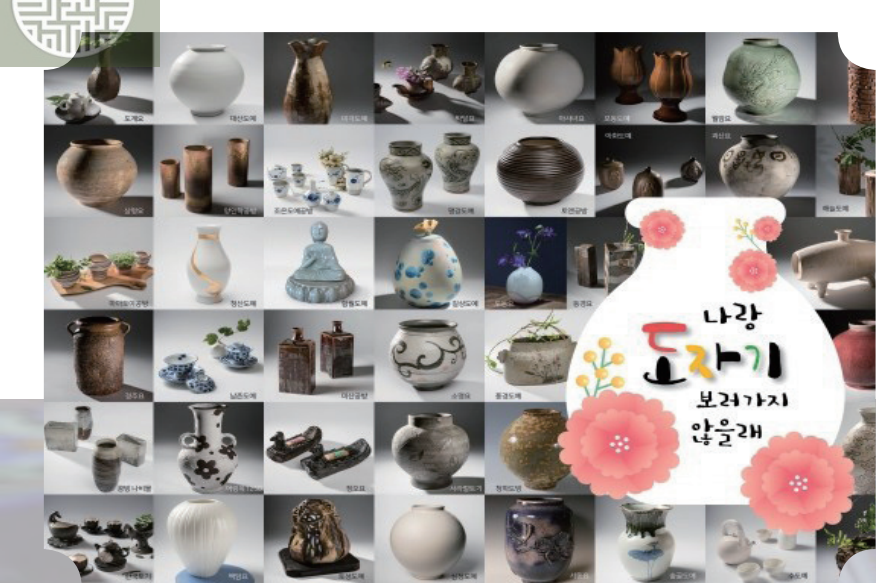


외되기 쉬운 분들을 초청하여 삼삼오오 모여서 동심의 시간을 가져봄으로서 함께하는 경주시민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홍보방안으로 SNS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라 천년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경주 IC, 건천IC, 경주, 대구, 울산, 포항 지역으로 도로 이정표, 홍보현수막 및 홍보포스터 설치하고, 각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교육원 등 리플릿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도자기관련 잡지사(월간도예, 차인지등)에 이번 축제를 홍보하고, 신문·방송 등 각 지면에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와 이렇게 성대하게 개막식을 열게 됐다.

이번 축제를 위해 기존의 몽골텐트가 아닌 한옥 형 부스 및 MQ텐트 47여동과 퍼포먼스와 체험부스를 합친 총74개의 부스에서 도자기와 기타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행사장의 시설물은 도자기 전시판매장 38동, 기타 공예판매장 10동, 도자기 퍼만들기 대회장 9동, 물레 및 그리기 체험장 4동, 가족화분 및 집문패만들기 체험장 3동, 관람 및 휴식 공간 4동, 중앙무대(공연장), 경주디자인고등학교 홍보부스 2동, 경주도자기협회 사무국 부스 1동, 안전요원 부스 2동을 각각 설치했다.

이번 제21회 경주도자기 축제에 대한 기대효과는 ▲시민들은 전시관람을 통하여 도자기의 다양성과 전통, 현대의 다양한 도자기를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며, ▲전시·시연을 통해 영세한 공예 업체의 작품과 제품을 홍보하고 소비자 및 연결해, 판로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되고, ▲도자기 축제를 통하여 도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성과 다양성을 홍보하고 관람객들에게 경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며, ▲경주 고유의 도자문화를 이해함은 물론 문화의식의 향상과 정서 함양, 도자문화를 대중들과 소통하고 도자역사를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되고, ▲경주디자인고등학교를 홍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도자기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겸비한 도예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윤근수기자



행사명	05월 19일	05월 20일	05월 21일	05월 22일	05월 23일	05월 24일	05월 25일	05월 26일	05월 27일	05월 28일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픈		14:30								
어린이 다도대회		13:00								
유명작가 퍼포먼스	기간중 상시 시연									
무대공연										공연 및 버스킹
한가족도자기 만들기 대회			14:00							
장애인초정 도자기체험				11:00						
어린이도자기 만들기 대회									14:00	
만원의 행복전 (도자기할인)	11시~15시까지 행사									
순발도장작기, 우리 집 문패 만들기	행사기간중 11시~17까지 상시 체험 (신청자에 한 해 구워서 완성후 집으로 택배 발송)									
차문화행사 물레성형 체험	행사기간 중 11시~17시 체험이 가능									
흙 밟기 찰흙 만지기 체험	행사기간 중 11시~17시 체험이 가능									
초별된 기물에 그림 그리기체험	행사기간 중 11시~17시 체험이 가능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아동정책 부문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 2023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아아동&시니어 브랜드 대상 수상...교육환경 개선 노력 호평 -  
- 지난달 27일 '대한민국평판대상' 자치단체장 부문 수상자에 이름 올려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 소비자가 선호하는 유아아동&시니어 브랜드 대상'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이 아동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이 용인의 미래를 책임질 원동력이라는 믿음으로 각급 학교 설립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려는 이 시장의 적극적인 행보가 단연 돋보였다.

시장은 지난해 6월 민선8기 용인특례시장으로 당선된 직후 시장직 인수위원회 내 교육인프라 TF를 만들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가다듬었다.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고령동 고요초·중, 영덕동 기흥1중, 모현을 왕산2초·중 통합학교(이상 가칭) 등 20개에 가까운 학교설립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 왔다.

취임 직후에는 직접 장상운 교육부 차관을 찾아가 시대변화에 따른 학교설립 기준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선을 건의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지역 초등학교 교장들과 직접 만나 간담회를 열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여왔다. 올해는 관내 103개 초등학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73개 학교 교장들과 만나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들 학교에선 통학시간 횡단보도 신호 조정, 원형육교 설치, 하천변 보행로 마련과 교량 설치 등을 토로했으며 이 시장은 직접 현장에 나가 문제를 살피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2020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이후 아동의 정책 참여와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

시는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어린이 안전CCTV 구축, 꿈이룸 안전 체험교실 등에 259억원을 투입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환경을 구축,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 정부포상에서 '아동친화 환경조성'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런 점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상도 주신 것 같다"며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데 더 힘내서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용인의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달 27일 (사)한국크리에이티브진흥협회와 진코리아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평판커뮤니케이션연구소와 한국시민기자협회 등 1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평판대상'에서 자치단체장 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한민국 평판대상은 매년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을

조혜영/기자

#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메타버스 사진전 개최

- 5월 22-31일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  
- 최대호 안양시장 "시민 뜻 잘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길"

안양시는 지난 19일, 주민참여예산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메타버스 사진전'을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의 역사를 총 5개의 테마로 구성했다.

총 254개의 게시물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과 각 동의 추진사업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젯(zep)'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누구나 PC나 스마트폰에서 주소(<https://zep.us/play/yWjJRE>)나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을 위해 애써주신 주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을 비롯한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메타버스 사진전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시민들의 뜻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안양일변가 지하보도 입구 환경 개선,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 등 총 93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신우용/기자



# 고양특례시, 보훈·안보단체와 소통간담회 실시

고양특례시는 얼마 남지 않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9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나라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고양시 보훈·안보단체장과 회원들을 모시고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소통 간담회는 민선8기 고양시 핵심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각 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동환 시장은 ▲400억원 규모의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선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3,200억원 규모의 창릉천 국가 통합하천사업 대상 선정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본격 시동 ▲고양 양재간 지하고속도로 민자적격심사 통과 ▲시청사 백석 이전 등

고양시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양시 보훈·안보단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견과 각 단체의 현안사항 및 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포함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나라를 위해 송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68회 현충일 기념식과, 제73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거행할 계획"이라며 "과거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의 헌신에 보답하여 예우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평택시 통복동, NH농협 평택시지부와 함께 COOL한 거리 만들기

평택시 통복동은 지난 18일 NH농협 평택시지부와 함께 통복천 일대와 통복시장 인근 공터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NH농협 평택시지부 직원들과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통복천변을 시작으로 환경정비 취약 구역인 통복시장 공터 주변을 정비했으며, 담배꽂초,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쓰레기 약 0.5톤 분량을 수거했다.

NH농협 평택시지부는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통복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환

경정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주섭 농협 평택시지부장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통복동이 깨끗하게 조성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보경 통복동장은 "거리는 cool하고 마음은 hot한 통복동 만들기 사업에 동참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역발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추경예산 63억 원 편성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63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광역시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 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3억 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출 이자 지원 38억 5천만 원, 이사비 지원 7억 5천만 원, 월세 지원 17억 원 등이다.

앞서 지난 4월 19일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추경은 당시 발표의 연장선이다.

다만, 지난 4월 발표된 대책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나, 이번 추경에서는 월세 지원대상을 계층 구분 없이 전세 사기 피해자 전체로 확대해 편성됐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전세 사기 피해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원하는 저리 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인 1.2~2.1% 이자가 시가 전 부담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이자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등은 기금수탁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

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긴급하게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탈락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완료 후 이사비를 지원한다. 4월 19일 시에서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이미 입주한 세대에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상담 및 지원 계획을 홍보하는 등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이 조속히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인 월세 지원이 시의회와 협의로 예산이 편성됐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국외의 특별법과 중앙정부의 대책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충남/기자

# 문화매일 신문사 주관 제1회 시니어 축구대회 성료



문화매일 신문사가 주관하고 경기도 광명시 80대 축구단 (단장 권오혁)이 주최 한 전국 80대 축구대회가 최근 광명시 복지관 운동장에서 이승재 수석 부회장의 사회로 4개팀 15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대회를 진행

했다.

식전 행사로 권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참석한 구단은 친분이 두터운구단들로 친선경기를 자주 양래해 왔던 만큼 지나친 승부욕을 떠나 단 한사람도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 대

회가 되도록 각 팀 임원진 및 동호인들의 각별한 안전을 주문한다고 말하고 1회 대회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수석 부회장이 이태부.광명시 시의회 안성환

의장 광명시 축구협 축구연합 오호근 회장 등 다수의 인사들이 참석해 대회를 빛내 주었으며 우승은 경기 파주시가 준우승 서울 영등포구 공동 3위는 서울 송파구 경기 광명시가 각각 입상했다.

최만식/기자



### 가수 아이유, 가정의 달 맞아 양평군에 1,000만원 성금 기부

지난 16일, 가수 아이유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양평군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해피나눔성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가수 아이유는 앞서 지난 2020년부터 관내 위기가구의 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코로나 19 예방 등을 위해 꾸준한 기부로 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지난 해 12월에는 양평군 사랑의 연탄 모으기 운동 성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하면서 연료비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는 데 큰 힘을 보탤다.

이번에 전달받은 성금은 '아이유가 사랑을 드립니다'라는 기획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의 생계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지속적인 기부활동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가수 아이유씨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기탁



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여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 용인도시공사, 미르스타디움 합동소방훈련 실시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18일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역북 119안전센터, 미르스타디움 입주단체와 함께 화재 상황을 대비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발생 시 직원 간 상호협력분담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실제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해 시설 이용자와 근무 직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시됐다.

훈련 내용으로는 소화기·옥내소화

전 위치 확인 및 사용법, 상황전파요령 및 비상 대응 방법, 화재 시 피난 요령, 피난 실패 시 행동 요령,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등이 진행됐다.

김진태 시설운영 본부장은 "앞으로도 내실있는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긴급한 화재 상황 속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르스타디움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용인특례시] 포곡면, 군부대 도로변 불법 생활폐기물 수거와 대청소 실시

지난 20일 사)누리전통문화보존회(회장 조혜영)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에버랜드 입구 군부대 주변 도로변에 무단 폐기된 농작업용 각종쓰레기, 폐비닐, 스포츠용품, 아이스박스, 생활폐기물 등 50L 쓰레기봉투 20여개를 수거했다.

지난달 군부대에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로 민원을 제기해 봉사활동에 나선 것이다.

군부대 담장은 위에는 유행철조망으로 접근을 차단해놓았지만 담장에 쌓여진 각종 쓰레기로 인하여 폐기물을 이용해 월담할 수 있어서 보안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봉사에 나선 조혜영회장은 흐르는 땀을 닦으며 함께 봉사활동에 나선 여러

분께 감사드리고 당장 시급한 것은 CCTV 설치와 불법 투기 현수막 게시가 필요하며 특히 이곳은 군사보호구역이며 포곡읍에서 지정한 청정지역으로 포곡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담당자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김상덕 포곡읍장은 "환경 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사)누리전통문화보존회 조혜영회장님과 봉사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포곡읍이 보다 살기 좋고 쾌적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환경 정화 활동에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경기도 김동연지사, "이스라엘-경기도, 새싹기업 협력으로 좋은 기회 창출"



### 김동연 지사, 19일 도청 방문한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와 면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나프탈리 베네트(Naftali Bennett) 전(前) 이스라엘 총리, 요즈마그룹 이갈 에를리히(Yigal Erlich) 회장을 만나 경기도와 이스라엘 간 경제 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나프탈리 베네트 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고, 반도체·바이오·자동차·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주요 미래 산업과 제조·서비스 등 기본 산업이 모두 발달해 있다"라며 "이스라엘과 경기도가 새싹기업이나 중소기업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좋은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을 해외 대학이나 기업에 보내려고 한다. 이스라엘의 대학과 기업에서도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혁신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베네트 전 총리는 "경기도와 이스라엘은 혁신문화, 기업가정신 등 공통점이 많은 만큼 활발한 새싹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호혜적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 경제정세와 미래 신산업 협력, 교육·통상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베네트 전 총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스라엘 제13대 총리를 지냈다.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경제부장관 등을 역임했고, 정보기술(IT) 새싹기업을 직접 창업한 기업인(CEO) 출신이기도 하다.

이날 만남은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기조연설을 위해 방한하는 베네트 전 총리 측이 김 지사와 한-이스라엘 관계 및 경기도와 이스라엘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글로벌 벤처캐피탈 요즈마그룹의 이갈 에를리히 회장과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 총괄 대표도 함께해 새싹기업 육성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요즈마그룹은 1993년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로 펀드를 출범한 뒤 1998년 민영화된 투자회사로,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했다. 도는 이스라엘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한-이스라엘 자유무

역협정(FTA)의 2022년 12월 발효를 계기로 향후 경기도 기업들의 이스라엘 진출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미국과 일본에서 4조 3천여억 원의 투자유치를 하고 돌아와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를 만나 혁신동맹을 제안하는 등 멈추지 않는 글로벌 경제 외교를 이어나가고 있다.

조혜영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 가정의 달 '테마가 있는 경로당' 방문해 어르신들과 특별한 소통의 시간 가져

박승원 광명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19일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 300여 명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방문은 ▲하안주공5단지 경로당의 '경로잔치 개최' ▲하안주공4단지 경로당의 '한궁 우수 경로당' ▲휴먼시아6단지 경로당의 '꽃밭 조성' ▲철산주공13단지 경로당의 '화분정원 조성' ▲한진아파트가로의 '건강체조 활성화' 등 '테마가 있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 더욱 의미가 깊었다.

꽃밭을 열심히 조성하고 있는 김희성 소하휴머시아6단지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무려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우리 경로당만의 자랑인 꽃밭을 함께 가꾸며 즐겁고 유익한 여가 활동을 보내고 싶다"고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함을 드린다"며,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꾸준히 귀를 기울이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여가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중에 대한노인회 지회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경로당에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117개의 경로당에서 노인 여가 활동, 식사, 건강관리, 친목 도모와 상담 및 일자리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자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꾸준히 지원할 방침이다.

윤용민기자



### 끝없이 펼쳐진 노랑 물결...고양시, 20일 '창릉천 유채꽃 축제' 개최

고양특례시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창릉천 강매석교공원(강매동 317-23 일원)에서 '창릉천 유채꽃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고양시 창릉천은 매년 5월이면 활짝 핀 유채꽃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다. 시가 강매동 주민들과 함께 조성한 유채꽃밭은 점점 규모를 넓혀 올해는 2만 4천평에 노랑 유채꽃이 만개해있다.

개막을 알리는 쏘리데 앙상블의 식전 4중주 클래식 공연과 함께 20일 오후 2시에는 중앙광장에서 개막식이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20, 21일과 27, 28일 주말동안 유채꽃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도전 프로그램과 마켓, 공연 등 풍성한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평일은 별도 프로그램 없

이 여유롭게 유채꽃밭을 둘러볼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유채꽃 그림 그리기 △유채꽃 페이시페인팅 △드론체험 △시민들이 노래와 춤을 뽐내는 뽐내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꽃과 어울리는 클래식과 통기타 연주 △마술 공연 △색소폰 연주 등 축제의 즐거움을 더해줄 공연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꽃의 도시답게 꽃차 시음회, 꽃 압화만들기, 다육심기 등 꽃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준비됐으며 꽃 수공예 제품을 판매하는 꽃마켓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로컬푸드마켓도 열린다.

유채꽃밭 사이에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 노랑 유채꽃 물결을 배경으로 봄날의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미레를 바꾸는 일! 고양

## 2023 창릉천 유채꽃 축제

기간 2023/5/20(토)~5/28(일) 오후 1시~6시 \*개막식 5/20(토) 오후 2시  
장소 강매석교공원(강매동 317-23 일원) 주차 강매동 652-2

세일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마켓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꽃차 시음회 및 꽃과 관련된 체험 (20일/21일/27일/28일)</li> <li>꽃과 관련된 수공예 마켓</li> <li>꽃과 관련된 만들기, 다육심기, 뽐내기 대회</li> <li>유채꽃 밭에서 즐기는 브라운관 촬영하기</li> <li>꽃밭에서 즐기는 로컬푸드 판매회</li> <li>꽃밭에서 즐기는 로컬푸드 판매회</li> <li>드론체험 (20일/21일/27일/28일)</li> <li>오래된 밭을 한 번에 단정하게 정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랑 앙상블(20일/21일/27일/28일)</li> <li>시인 키코 페이시페, 인스티즈밴드 등 SNS에 인기</li> <li>뽐내기 대회(20일/27일)</li> <li>시민들이 노래와 춤을 뽐내는 뽐내기대회</li> <li>유채꽃밭을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li> <li>어린이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li> <li>꽃밭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꽃과 관련된 수공예 마켓</li> <li>꽃과 관련된 만들기, 다육심기, 뽐내기 대회</li> <li>유채꽃 밭에서 즐기는 로컬푸드 판매회</li> <li>꽃밭에서 즐기는 로컬푸드 판매회</li> <li>꽃밭에서 즐기는 로컬푸드 판매회</li> <li>꽃밭에서 즐기는 로컬푸드 판매회</li> <li>꽃밭에서 즐기는 로컬푸드 판매회</li> </ul>

\*부족한 연석도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최: 고양특례시, 고양구청, 고양시 주민자치회, 고양시 주민자치회

문의: 031-909-9000



경북의 새로운 희망으로

# 「2023년 지방외교포럼」 개최

- 이철우 도지사, “지방외교는 지속가능한 지방시대의 핵심 동력” 강조  
- 시도지사협의회-주한외교단 간 지방외교협력MOU 체결, 지방외교 새로운 획 그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동북아학회 등과 함께 「2023년 지방외교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우동기 한국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카를로스 빅토르 봉구 주한외교단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지방외교 시대의 글로벌 브랜드 (Glocal Brand) 전략'이란 주제로 열

린 이번 포럼은 학계·지자체 등이 함께 뜻을 모아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처음 마련한 자리로서,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지방외교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시대의 외교 핵심전략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단체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포럼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주한외교단은 각 국가 및 지방정부간 상호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는데, 대한민국 주재 외교단은 한국에 주재하는 115개 주한외교공관으로 구성돼 있고, 협약식에는 주한외교단 대표인 카를로스 빅토르 봉구 주한대사관장과 재무관인 페데리코 알베르도 구에요 까밀로 주한 도미니카공화국대사가 참석했다.

## 영덕군, 민선8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 각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군정 비전과 정책실현의 전략적 방향 제시  
- 김광열 군수, “군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주시길”



영덕군은 지난 19일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지역의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자문역할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 의성군, 23년 시책평가 대응계획 보고회 개최

김주수 군수, “적극적 평가 대응과 신규 시책 발굴로 우수 성과위해 최선” 당부



의성군은 지난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주수 군수 주재로 23명의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책평가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대외적으로 시행되는 기관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로, 군정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적인 평가 대응과 신규 시책 발굴로 우수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치유원, 영주시 관광하고 선물 담아가요

산림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수증 이벤트 진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유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지역 경제 및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영수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여행사 연계 숲으로 가는 기차여행, ▲2023년 영주 소백산 철쭉제 연계 「소백산 따라 치유여행」등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행사로 오는 5월 20일에는 지역예술가들과 함께 숲속 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소백산 따라 치유여행 2023. 5. 27. (토) ~ 28. (일) 소백산 철쭉제 · 국립산림치유원

##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울진군 선수단 해단식 개최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울진군 선수단 해단식 개최 울진군은 지난 18일,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한 울진군 선수 및 지도자, 체육회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 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우수선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도민체전의 생생했던 현장 영상물 상영으로 대회기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공적을 치하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됐다.



## 남해군,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

남해군은 지난 18일,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한 주민참여단원은 “교육을 통해 배운 타 지역 우수사례를 본받아 앞으로도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 예천군, 구제역 차단방역 총력! 긴급 백신접종 실시

백신 1,535농가에 무상으로 공급,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구제역 꼼짝 마

예천군은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유입방지를 위해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 추가접종을 추진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긴급 백신접종은 오는 20일 까지 관내 소·돼지·염소 사육농가 1,535호 90,256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백신은 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된다.

고령 및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예방접종요원을 통해 접종을 지원하고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하면 된다. 긴급 백신접종을 불이

행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도 100% 감액 지급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우제류 사육농가에 생석회와 소독약품을 추가로 공급하고 전화 예찰을 강화한다.

김경보 축산과장은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및 농장 내외부 소독, 사람·차량 통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방역관리를 구제역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소방본부, 소방민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소방민원업무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해 도민 서비스 강화
- 이영팔 소방본부장, "민원 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소통으로 부족한 사항 개선"

경북 소방본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도내 21개 소방서 소방공무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성 강화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2023년 소방민원·화재안전조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일선 소방서의 다중이용업, 위험물, 건축, 화재안전조사 담당자 등이 참석해 소방민원 역량강화를 위한 당면현안 논의 및 업무능력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했다.

워크숍은 ▲분야별 변화하는 소방정책방향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래강사 초빙 직무교육 ▲내 성격에 맞는 민원응대방법 및 스트레스 관리요령 ▲소방본부장 특강 ▲소방예방 행정업무 개선방향 제시 및 건의사항 의견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건의된 업무의 개선방향 및 고충·애로사항은 향후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경북도에서 제안한 규제개혁사례 중 산불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통한 현장 주유가 가능하도록 전면 허용하는 것을 적극 건의해 관련규정이 개정(하반기 예정)되는 좋은 사례가 있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도민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으로 경북소방의 신뢰도 제고 및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소방민원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소통으로 부족한 사항을 적극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영천시, 친환경 LED 멀티사인시스템 추가 설치

영천시는 영천역 등 유동 인구 및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 5곳에 친환경 LED 멀티사인시스템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천시는 지난해부터 친환경 LED 멀티사인시스템 설치를 시작해 영천역 광장, 시청오거리 등 주요 교차로 총 12개소에 사업을 완료했다.

멀티사인시스템은 주소정보와 관광 명소 안내 등 지역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별도의 전력 공급 없이 길 안내가 가능하다.

특히 LED 모듈 적용으로 기존 조명용 전등 대비 80퍼센트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해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한편 영천시는 올해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노후 된 도로명판 500여 개와 건물번호판 1,000여 개를 교체하고, 재난·응급상황 발생 시 주요정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판 스마트 신고시스템 도입 및 우로지 생태공원 주소정보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LED 멀티사인시스템 설치가 도로명주소 생활화와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주소정보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 스마트한 정밀 농업, 드론으로 범시 뿌린다!

### 노동력 절감 드론직파 벼 재배 연시교육, 핵심기술 제공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정밀한 파종작업과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을 위해 지난 19일, 군위에서 농업인과 시군 벼농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드론직파 벼 재배 연시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시교육은 드론직파의 단점이 보완된 핵심기술과 파종 후 입모향상을 위한 관리기술을 교육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직파재배기술을 제공했다. 드론직파 벼 재배기술은 농촌진흥



청에서 개발해 보급중인 기술로 파종, 병해충 방제, 제초제 살포, 시비 등 수확을 제외한 벼 재배 전 과정을

드론으로 진행한다. 일반적인 이앙재배와 비교해 육묘·모내기가 없고 종자가 적게 들어



1ha당 119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노동력은 87.9%가 줄어든다. 도내 벼 재배면적 94,763ha의 10%만 직파를 해도 113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며 벼 직파에 드론을 활용하면 노동력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며 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최초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쾌거!

- 2005년 시행 이래 최초 우수기관 선정으로 특교세 8천만원 등 확보
- 오도창 군수, "군 재난안전관리 체계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영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3년 재난관리평가에서 평가 실시 이래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난관리평가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관별 전년도 재난 안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영양군은 2005년 실시 이래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특교세 8천만원, 포상금 4백만원, 장관표창 등의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예정이다.

군은 평가항목 중 재난관리기금 관리실적, 재난안전교육,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실태점검, 재난 상황관리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및 훈련실적, 복구사업 관리 역량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실적도

높은 비중으로 인정받았다. 영양군은 지난 한해 대형재난 예방을 위하여 하천셋강살리기사업, 위험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군민안전보험을 연차별로 확대, 조기경보시스템을 위시한 4차 산업의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군민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이 모든 노력이 이번 성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군관계자는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모든 일에는 처음이 중요하다"며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미흡 지표에 대해서 철저히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의 안전관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군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 부자·조손가정 반찬봉사 펼쳐



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 부자·조손가정 반찬봉사 펼쳐

봉화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한부모 부자 및 조손가정 27가정에 반찬봉사를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의와 함께 5월의 반찬으로 치킨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돈가스를 만들어 배달했으며, 6월에도 치킨을 만들어서 배달할 예정이다.

반찬봉사에 앞서 봉화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문화회관에서 3만 봉화군민의 꿈과 희망! 봉화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다짐하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캠페

인 및 서명활동도 전개했다.

한편, 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 내 14개 여성단체의 연합회로 1,5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매월 노인복지관 급식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설·추석 명절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명절나기 물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꾸준한 사랑과 정성을 전하고 있다.

김모든 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저희들이 조금만 힘을 들여서 다른 이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찾아서 하겠다.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의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 낙동가람 초화단지, 작약·유채꽃 활짝, '주말 나들이 최고'

안동시가 어가골 인근 낙동강변에 조성한 낙동가람 초화단지(47,610㎡)에 작약과 유채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다. 다양한 꽃을

보며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가족, 친구들과 돛자리를 펴고 쉴 수 있는 피크닉 명소로 주말 나들이객들의 발길을 모을 전망이다.

초화단지에는 봄(작약, 유채, 금계국, 겹벚나무, 매화), 여름(가우라, 사계패랭이, 배롱나무), 가을(구절초, 억새, 수크령)을 알리는 계절별 다양한 수종의 꽃과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낙동가람 초화단지 앞 하중도에 유채를 파종해 현재 개화가 시작되어 다음 주에는 노란물결로 장관을 이룰 예정이다. 유채는 남부지방에서는 가을 파종하여 4월

초부터 개화가 시작되나 안동 지역에서는 월동이 어려워 3월 초에 파종하여 5월에 만개하는 특징이 있다.

그 외에도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 위한 소나무 숲 조성을 시작으로 겹벚나무, 느티나무를 초화단지 구간 구간에 식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화단 정비, 포토존, 휴게시설 설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강변을 찾는 시민들이 꽃과 나무를 보며 계절을 느끼고 잔디밭에서 휴식하며 일상 속 잠깐의 여유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라며 "여름철 파종하여 가을에 개화하는 코스모스, 해바라기 물결도 기대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보광아이엔티 손정길·차순자 회장 부부, 경북도에 고향사랑기부

##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전달, 답례품 사회복지시설에 재기부 선행

보광아이엔티 손정길·차순자 회장 부부가 지난 16일, 경북도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손정길 회장은 군위 출신으로 고향의 미래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군위 교육발전기금 기탁, 조순가정·독거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성금 전달, 필리핀 고아원·장애인 시설에 이불을 전달하는 등 평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차순자 대표는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을 역임했고 계명대학교 대학장학금 기탁,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불, 의류 등을

전달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손정길·차순자 부부는 "기부금이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겠다"라며 "답례품은 고향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재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향 경북 발전을 위해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상북도새마을회 및 22개 시·군회장

##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지지”

- 경주시의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지지 열기 경북 전체의 염원으로 번져  
- 지난 18일, 새마을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치지지 선언 개최해

경주시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대한 열기가 갈수록 고조된 가운데, 경북 22개 시·군에서도 경주 유치를 염원하는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어 2025 APEC 경주유치가 어느덧 경북 전체의 일로 힘을 모아가고 있다.

지난 18일, 경상북도새마을회 및 22개 시·군 회장 일동은 경상북도새마을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주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의 최적 지임을 밝히고 반드시 유치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주 유치지지 선언과 함께 팔을 걷어 부치고 지지대열에 동참하는 뜨거운 우정을 보여주며, 감동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날, 경주시새마을회 손지익 회장은 “2016년 월드컵 에너지포럼, 2017년 세계유산 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다양한 분야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로서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전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다”면서,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개최



최지를 가장 한국적이고 역사가 깊은 도시인 경주 개최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지지하며, 경주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경주 유치

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며, 경주시와 함께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주시새마을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지지선언을 마쳤다.

윤태용기자

## 경북도, 취약시설 선제적 감염병 검사 확대 시행

- 감염병 발생 전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상시검사 실시  
- 손창규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한명의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는데 수백명 확진용 검사보다 중요하다”고 밝혀

경북도는 지난해 추진했던 경로당 대상 감염병 선제적 검사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염병 검사사업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철곡 지역 25개 경로당의 어르신 285명을 대상으로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등 21종의 병원체에 대해 유행성 선제적 검사를 진행하고 19명의 감염자를 찾아내 감염병 유행의 선제적 예방효과를 실현한 바 있다.

올해는 검사대상 지역을 철곡, 포항, 영천 3곳으로 확대해 경로당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도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

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44명을 검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황색포도알균 등 7명의 감염자를 찾아내 보건소에 통보하고 치료했다.

손창규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코로나19의 일상화, 기온상승, 사람들의 활동과 접촉량 증가에 의해 유행성 감염병 발생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염병 취약계층과 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는 코로나19 유행시기만큼이나 중요하므로, 한명의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는 것이 수백 명의 확진용 검사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청송군,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 가정의 달 맞아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 윤경희 청송군수,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 하자” 당부

청송군은 지난 19일(금), 청송경찰서와 함께 청송시장에서 ‘가정폭력 예방·근절 및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근절’ 팸플릿을 배부하고 폭력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 안내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해 임시숙소·보호시설 연계, 가해자 격리·접근금지 조치, 스마트 워치 배부 등 안전조치와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를 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내년 스포츠명품도시 구미의 도민체육대회를 기약하며

###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구미시선수단 해단식



구미시는 18일 북해스포츠펠트 다목적체육관에서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관내 학교장 및 체육회 임원, 선수 등 350여명이 참석해 체육회 주관으로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구미시선수단 해단식을 열었다. 해단식은 4일간 치러진 체육대회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준우승기, 준우승컵 및 상장전달, 단기반납, 유공자표창,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선수단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은 물론, 앞으로의 구미체육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 했

다.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울진군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 구미시는 29개종목 845명의 선수단(선수 601명, 임원 244명)이 참가해 전통적 강세종목인 씨름, 핸드볼, 레슬링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종합 2위의 값진 결과를 안고 돌아왔다.

수영종목에서 구미시체육회 소속 양지원, 황민서, 이창민선수와 볼링종목 구미시청 소속 백승자선수가 대회 2관왕을 달성했으며, 육

상종목 포환던지기에서는 금오고 박소진, 박시훈선수가 대회시기록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들과 지도자, 그리고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함께 맘 흘리고 지원해 주신 체육회 임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내년 명품 스포츠도시 구미에서 개최되는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청년회와 함께 하하!! 호호!!

### 2023 건강백세를 위한 하하하 운동 전개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청년회는 5월 19일 점촌3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어르신 150여 분을 모시고 올해 네 번째 건강백세를 위한 하하하 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은 건강체조, 웃음운동체조, 건강박수치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는 재능기부사업이다.

손국선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회장은 “건강백세를 위한 하하하 운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백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에서는 진실·질서·화합을 바탕으로 시 발전과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박중석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청년회장은 “본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항상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시는 청년회원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를 자주 마련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회에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 말씀을 통해 신현국 문경시장은 “항상 시 발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갖은 역경을 이겨내어 지역발전에 헌신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봉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서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라이브네이션,아레나공연장부산에 유치한다

### -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분야 세계 1위 공연기획사 Live Nation과 업무협약 체결 - 한류, 케이팝 등 첨단 문화콘텐츠 구축, 문화·관광 거점도시 도약 발판 마련

부산시는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이하 라이브네이션) 기업과 최첨단 아레나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라이브네이션'은 베뉴네이션(Venue Nation)의 브랜드 네이밍으로 전 세계 250개 이상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공연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온세, 마돈나, 레이디가가, 아델,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투어를 책임지고 있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분야 세계 1위 기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준호 부산시장을 비롯해 라이브네이션(미국) 수석부사장인 그레고리 길린(Gregory Gillin), 특수목적법인(SPC) ㈜비겟(B.GET) 이승환 대표이사도 참석해, 부산에 2만석 규모 최첨단 아레나 공연장 및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고 첨단 문화 콘텐츠를 구축해 부산이 문화산업 및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협약서에는 ▲(부산시) 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 ▲(Live Nation Korea) 단지 내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제공 및 운영, 공연장 기획 및 설계 등에 대한 노하우 제공 ▲(㈜비겟) 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 및 자원 조달 업무수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라이브네이션'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지역 내 후보지를 선정해 아레나뿐만 아니라 전시 관람 체험시설과 편의시설, 케이(K) 콘텐츠 관련 글로벌 인재 육성과 콘서트 이용객 수용을 위한 숙박시설 등의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박준호 부산시장은 "오늘 협약으로 부산에 라이브네이션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라며 "부산에 지어지는 아레나는 케이팝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관광허브가 되어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시리아관광단지, 해운대해수욕장 등 관광명소와 부산불꽃축제, 지스타 등 다양한 콘텐츠가 서로 융합되어 부산이 문화적 역동성이 풍부한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



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산업연구센터)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의 국내 콘서트 개최 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1회(3일 기준) 공연당 6,197억 원에서 최대 1조 2,207억 원으로 분석했다. 이는 방탄소년단(BTS)이 국내에서 연간 10회 공연할 경우 최대 12조 2,068억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외래 관광객 비중이 최대 50%로 늘어날 경우 BTS 공연 1회당 소비 창출 규모는 7,422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조2,20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706억 원, 1만81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준/기자

# 박동식 사천시장, 사천강 사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 등 직접 방문

박동식 사천시장은 지난 18일 우수기 안전점검을 위해 사천강 사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날 박 시장은 '사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고음~예수간 교량사업'에 대한 사업현황과 추진 등을 보고 받고, 안전 점검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사천강의 치수 및 홍수방어능력 증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4월 착공, 2024년 9월 준공이 목표다.

경상남도 수자원과에서 총사업비 350억 400만원을 투입해 하천정비(L=3.8km)와 함께 배수구조물 15개소, 교량 2개소 등을 조성한다.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2024년 3월까지 항공우주테마공원 방면 예수지구 제방을 완료하고, 2024년 9월까지 용당2교량을 조성할 예정이다.

'고음~예수간 교량사업'은 사천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동면 고음-예수리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 혼잡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음리와 예수리를 잇는 교량 1기를 설치한다.

시는 사천강 사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마무리되면 사천강 인접 지역의 상습적인 침수피해 해소와 교통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우기에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공사시행에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준/기자



# "청송사과"지리적표시 제113호 등록증 전수식 개최

청송군은 지난 5월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 김정우 청송사과협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사과" 지리적표시 등록증 전수식을 가졌다.

청송사과는 2007년 지리적표시 제34호로 최초 등록 했지만, 당시 등록단체(청송사과영농법인)의 사정변경으로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사)청송사과협회를 등록단체로 재신청하여 2023년 5월 15일 지리적표시 제113호로 최종등록을 완료하게 됐다.

(사)청송사과협회는 1,078명의 사과농가 회원을 보유한 청송군 사과회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보호회원 규모, 조직체계, 사업수행 경험 등으로 볼 때 지리적표시제 운영에 적합한 단체라는 평가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의 명성과

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지역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경우 지역의 생산품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청송사과협회 회원농가들은 자체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를 거친 지리적표시품을 출하함으로써 판매 활성화 및 원산지 보호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청송사과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군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2023년 달성군 취업박람회 오는 25일 개최

달성군은 오는 25일 13시부터 16시까지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23년 달성군 취업박람회(달성군 참좋은 일자리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이날 취업박람회에는 쿠팡(주), ㈜대동, ㈜이수페타시스, 평화오일씨일공업(주), ㈜사니, 농심태경(주), ㈜메가젠임플란트 등 관내 40여 개 기업체가 참여하며, 생산직·관리직 등 4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구인-구직자 간 현장 면접 및 채용을 진행하며, 그 외에 취업정보 제공 및 진로상담, 관내 기업체 홍보, 각종 지원제도 안내 등 구인-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된다.

또한 대구달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구광역시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대구광역시교육청,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한국폴리텍대학남대구캠퍼스,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구테크노파크 등 관내 외 여러 유관기관들이 참여하여 취업박람회를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관내 우수 기업체를 널리 홍보하고, 구인-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동현/기자



# 이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입니다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기념 I♥군위'투어 운영(5월26일부터6월30일까지)

동대구역에서 출발, 군위 대표관광지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투어운영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드디어 군위가 대구의 품으로 들어온다. 대구광역시와 (재)대구문화예술훈원 관광본부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2023.7.1)을 기념해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알리기 위한 'I♥군위' 투어를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 대구의 입장에서 도심관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큰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관광분야에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광역도시의 편리한 교통과 숙박, 쇼핑 등 잘 갖춰진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정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자원을 보유한 군위의 관광자원이 더해져 영남권 관광의 허브로서 위상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I♥군위' 투어는 향후 대구와 군위를 잇는 도

심순환투어 운영의 시범적 프로그램으로서 동대구역을 통해 방문하는 관광객의 군위군으로의 여행을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일일투어로 진행된다.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금,토,일 오전 9시 30분에 동대구역(대구시티투어 승강장)에서 출발해 군위의 대표관광지인 군위 한밤마을, 사유원(자유여행), 화본역, 삼국유사테마파크를 둘러보게 된다. 전문 해설사가 전해주는 지역의 이야기와 함께 관광지 입장료도 할인되는 등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다.

'I♥군위' 투어는 5천 원(일반기준, 초중고생으로 3천 원)의 참가비가 있으며, 투어에 참여하는 여행객의 경험적 조연을 통해 향후 정기적인 도심순환투어 운영 시 반영될 예정이다.(설문조사(성인기준) 후 상품권 제공)

윤근수/기자



# 울릉군, 독도박물관-고흥분청문화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울릉군 독도박물관은 2023년 5월 18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전시, 학술, 교육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고흥군의 지역거점 박물관으로 고흥군 주민들은 개척령 이전부터 울릉도를 드나들며 이곳의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진 두 지역의 박물관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손을 맞잡았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골자로는 박물관 주요 업무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 추진 및 홍보 협력, 독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상호협력, 학술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상호 소장 자료대여 및 이용에 관한 협력 등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독도박물관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박물관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화 기반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과거 고흥군에 속해 있던 거문도와 초도 주민들의 울릉도 및 독도 이용을 중심으로 한 공동기획 전시를 2023년 7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의 업무협약 통해 상호발전 위한 협력체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며, 이 협약이 울릉도 개척 이전의 역사를 조명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현중,조강재/기자







# 전북서해안지질유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

##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최종 승인, 국내 첫 해안형 세계지질공원 탄생

우리나라 서해안의 우수한 지질경관 특성을 모두 간직한 전북 서해안(고창·부안) 국가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이는 2022년 고창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이어 다시 한번 전북도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또 국제적 인증을 통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최종 승인됐다.

고창군과 부안군의 육상과 해역 전체를 포함한 총 1,892.5km<sup>2</sup>(육상 1,150.1, 해상 742.4)의 면적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으며, 이곳에는 총 32개소의 지질명소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5번째\* 세계지질공원이자,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으로는 국내 최초다.

이번 인증으로 국내·외 탐방객 증가로 인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질공원 운영비와 더불어 향후 탐방로 조성 등 탐방객 편의 시설 구축 관련 국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는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센터' 조성(100억 원 규모) 등 다양한 생태체험 기반 구축 사업을 발굴해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간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2017년 9월 도내 1호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세계지질공원 국내 후보지 추진 자격을 획득했다.

2020년 11월에 유네스코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탐방로 등

각종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 신규 탐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지속 노력한 결과 2022년 9월 30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심사위원들의 현장실사에서 탐방 프로그램 우수성, 지속 가능한 발전, 공원운영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노력과 의지를 높이 평가받았고, 최종 인증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인증 승인과 함께 양질의 탐방 프로그램 개발로 지속 가능한 발전 기여,

지질공원 선진 운영 사례 도입 등을 위한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 등을 제언했다.

이에 전라북도와 고창군, 부안군은 집행이사회의 제언사항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과업을 적극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도에서 추진 중인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등 체류형 생태탐방 기반 구축과 유네스코 브랜드를 연계한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류 인구 유입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2017년부터 6년간 피땀흘려 이룩한 노력의 결실이다"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유네스코 국제 공인 생태관광 브랜드를 활용해 체험형, 체류형 탐방객 유치와 프로그램 발굴 및 관련 국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지역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 경제효과를 도출하도록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서는 오는 9월에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세계지질공원 총회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 김순호 구례군수, 남성현 산림청장 만나 국비 지원 건의

## 산림레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립산림레포츠센터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목재친화도시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 건의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17일 산림청을 방문해 남성현 산림청장을 면담하고 산림분야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김 군수는 생활인구 유입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산림청 주관 주요 사업 중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 △구례군 목재친화도시 조성 △지리산둘레길 구례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총 사업비 308억 원(국비 283억 원) 중 2024년에 필요한 국비 20.5억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구례군이 산동면 일원 산림청 소유 국유림에 유치하고자 하는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 사업은 지리산정원, 구례자연드림파크, 지리산스카이런을 연계하여 산림레포츠산업을 활성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산림청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리산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지리산둘레길 구례센터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김순호 군수는 "국립산림레포츠센터, 목재친화도시 공모 등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향후 전라남도도 긴밀히 협력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 군산시, 미스트롯1 진 송가인과 함께하는 굿(Good) 보러가자

군산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스트롯1 진 송가인이 찾아온다.

군산예술의전당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2일 오후 7시 30분 대공연장에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단과 공동기획으로 '굿(GOOD)보러가자' 공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굿GOOD보러가자'는 지난 2004년 첫 선을 보인 후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전통공연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에서부터 퓨전국악인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향연을 한 무대 위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시와 함께 산업단지 근로자를 초청해 전통문화예술을 선보이며 산업현장의 일선에 있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았다.

국악인 오정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부터 퓨전국악인까지 세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예인들의 다채로운 가(歌)·무(舞)·악(樂)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일규(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와 판소리, ▲진주삼천포농악(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의 다채로운 가락, ▲김주홍과 노름마치가 선보이는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Electronic Dance Music) 사운드와 전통음악의 퓨전 공연,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가수 송가인이 선보이는 퓨전국악을 만나볼 수 있다.

이현연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육고무, 판소리, 퓨전국악 등 국악선물세트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이번 공연을 통해 무형유산의 아름다운 가치를 재발견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굿GOOD보러가자' 공연은 무료로 운영되며 오는 23일 오후 2시 티켓링크에서 인터넷예매(1인2매)가 진행되고 인터넷예매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공연당일 현장배부 동시에 진행 할 예정이다. 기타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태/기자

# 남원시, 디지털 정보격차 완화 본격 '돌입'

## 경로당 시정홍보 와이파이 구축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가 '경로당 와이파이 구축' 추진을 위해 SK브로드밴드(주)와 '경로당 시정홍보 와이파이 구축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남원시와 SK브로드밴드는 남원시 관내 경로당 494개소에 공유와이파이 구축과 IPTV 설치 및 시정 홍보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남원시 전체 마을 경로당에 고속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통신료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친숙한 공간에서 스마트 기기 정보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로당 IPTV를 통해 축제, 행사 등 다양한 시정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유익한 영농·건강정보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경로당 시정홍보 와이파이 구축 사업으로 디지털 정보격차를 완화시키겠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남원시에서는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 화순군, 한국관광공사와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 관광두레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관광 효과 기대

화순군은 17일 한국관광공사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두레 조성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관광두레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사업체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관광두레 광주·전남 신규지역으로 전남 화순군 1개 지역이 선정됐다.

화순군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할 주민공동체 또는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는 4월 27일 접수·완료되어 심사를 통해 6월까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오는 6월 확정된 2023년 신규 주민사업체는 최장 5년간, 최대 1억 1천만 원에 해당하는 성장 단계별(예비, 초기, 성장)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역량강화(전문교육, 견학), 파일럿, 컨설팅, 법률/세무,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창업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



원을 받게 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두레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두레PD 활동 및 홍보를 지원하고, 관광두레사업으로 화순의 특색을 지닌 관광콘텐츠를 발굴하여 화순 관광을 선도하는 주민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최

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 관광두레 정경은PD는 "관광두레사업을 통해 화순을 대표하는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주민사업체와 발맞춰 지역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경호/기자

# 김성 장흥군수, 2024년 국비예산 확보 '총력전'



2024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1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를 차례로 방문했다.

중앙부처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김 군수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비롯한 지역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김성호 안전차관을 방문한 김성 군수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유치와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건의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450억 원 규모(국비 100, 도비 200, 군비 150)의 사업으로 장흥군은 우드랜드 일원에 부지를 확보하고 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장흥군은 전남도 전지역에서 1시간 내에 닿을 수 있는 생활권과, 전남소방본부 등 다양한 소방안전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김성 군수는 전남 지역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가 높아 국민안전체험관 설치가 시급하다며 장흥군이 안전체험관의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분야의 특별교부세 사업도 건의했다.

장흥군에서 건의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모두 7건으로 30억 9000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지역현안 관련 사업은

탐진강습지공원 데크시설 정비, 정남진 해양낚시공원 보수, 청소년수련원 외벽 교체, 회진 안삭금항 물양장 설치 등 4건이다.

탐진강습지공원 데크시설은 하단부 부식이 심각하여 관광객과 지역민의 시설 교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정남진 해양낚시공원도 방문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기반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난안전 분야는 장동 계제1교 위험교량 정비, 장평 용강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관산을 동두마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 관계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장흥군은 전남도 전지역에서 1시간 내에 닿을 수 있는 생활권과,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 안양 학습장수 마을하수도 확대,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4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장흥군은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노후에 따른 효율 감소로 매년 6억원의 군비를 들여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김성 군수는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해 지역에 필요한 국비 현안사업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며,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국비 확보에 성공해 장흥군 예산 7000억원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 진도군, 주민과 함께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추진

진도군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청정자원을 관리·보전하고 경관개선을 위해 주민 스스로 참여해 마을을 가꾸는 특화사업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필수적인 블루투어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신규 마을 45개소를 포함, 총 138개소 마을을 선정해 올해부터 200만원이 증액된 연 500만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한다. 선정된 마을의 주민들은 ▲꽃길 조성 ▲화단 가꾸기 ▲벽화 그리기 등 경관개선 사업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영농폐기물·해양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

했다. 또한 지역활동가와 행복디자이너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마을별 고유의 특색을 찾아볼 수 있는 컨설팅을 마을 현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총무과 관계자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화합과 성숙한 주민자치 문화 형성의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마을 곳곳이 아름답게 가꾸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사례 마을을 대상으로 종합평가·선정이 올해 11월 진행돼 우수시군 6개소를 선정, 대상 1개 시군에 1억원, 최우수 2개 시군에 각 5,000만원, 우수 3개 시군에 3,000만원의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윤경호/기자



### 해남 포레스트수목원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해남 포레스트(4est)수목원이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은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보전과 관리, 이용을 위해 조사·수집·증식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 국·공·사립수목원 중 식물의 보존 현황, 전문인력 수준, 표본 보유현황 등을 평가해 지정하며, 포레스트수목원은 대표종인 수국을 포함해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이 100점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식물자원을 보존하고 증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남군 현산면 봉동마을에 위치한 4est수목원은 식물학을 전공한 김건영씨 부부가 5년여에 걸쳐 조성한

곳으로, 6만여평 숲을 따라 1,400여종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2019년 해남 최초 민간 사립수목원으로 등록됐으며, 인문학과 수목원의 만남을 주제로 동서양의 철학적 이상향이 담긴 소정원들이 다채롭게 조성되어 있다. 특히 8,000여 그루를 식재한 수국정원은 국내최대 규모로, 품종원에서는 김건영 대표가 전국을 찾아다니며 수집한 50여종의 희귀 수국도 보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의 대표 관광명소인 포레스트수목원이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에 지정되면서 다양한 식물자원 보전, 전시를 통해 특색있는 지역수목원으로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선애/기자



### 강진군,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추가 모집

강진군은 5월 24일까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제공해, 쾌적한 사업장 환경 개선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사업 신청결과,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대상자 21개소를 1차 확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업체별 경영환경개선 사업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2차 사업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5월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심사 후 6월부터 지급되

며, 총 예산은 2억 원으로 100개소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옥외간판 교체, 실내 및 화장실 인테리어 개선, 입식 테이블 세트 및 상품 판매 진열장 교체,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며,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은 해당되지 않는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 직영점 및 가맹점, 유희 및 사치·향락 업종, 휴·폐업 중인 업체, 국제·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노후 점포개선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추윤호/기자

## 전남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업무협약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한화빌딩에서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왼쪽부터)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공영민 고흥군수. 전남도와 고흥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일 서울 한화빌딩에서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된 고흥을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공

### 고흥에 ‘~구성품 제조시설’ 구축 등 우주산업 중심지 육성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순천 울산산단에 발사체 단 조립장을 구축기로 확정한 상태로, 향후 고흥에 발사체 클러스터 부지가 조성되면 발사체 핵심 구성품 제조시설 건설 계획을 내놓는 등 전남에 우주발사체 제조시설 투자 의지를 다졌다. 김영록 지사는 “국가우주 발사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주 관련 기업과 협력해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우주 개발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전남이 세계 7대 우주강국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민 군수는 “협약을 통해 앞으로 발사체 선도기업(앵커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특히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체 구성품 제조시설이 구축되면 고

흥이 명실상부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손재일 대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전남도, 고흥군과 포괄적으로 협력, 국내 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지난 3월 후보지로 지정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발사체 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건립, 민간 발사장, 연소시험장 등 우주개발 핵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를 비롯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우주발사체 관련 기업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 민간 기업이 발사체 개발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해명/기자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새로운 볼거리 “2023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개막

###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식물 전시회, 37개 기업 및 대학 등 참여, 560여종 정원식물 전시

2023년 정원식물 트렌드를 선보이는 ‘2023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품평회(주관 국립세종수목원)’가 19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이달 29일까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개최된다. 정원식물 전시·품평회는 특별한 정원식물을 찾고 있는 가드너와 새로운 식물을 육성·생산 또는 유통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K-정원식물 플랫폼이다. 매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리던 전시·품평회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전시·품평회는 국내 최대 규모로 37개의 기업, 대학 등이 참여했으며 출품된 정원 식물은 560여종이다. 전시 기간 동안 자생식물(138종), 국내육성품종(130종), 글로벌 트렌드를 보여주는 국외도입품종(291종)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날 개최식에는 류광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 천제영 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안상현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로 사전(18일) 진행된 전문가 품평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식물 소개, 정원식물의 확산과 품종 육성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공로패 수여, 테이프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조직위는 전시회 기간 방문하는 관람객의 정원식물 이해 증진을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정원해설사의 현장설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천제영 사무총장은 “전시·품평회를 여기 박람회장에서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자생식물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및 정원산업 확산으로 K-가든문화의 정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 “기억과 기록의 힘”...강기정 광주광역시장 5·18특별전 관람

### 오월어머니 21명 1년간 가족 사랑 등 작품에 담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5·18민주화운동 특별전시를 관람하고 오월의 의미를 되새겼다. 18일 동구 ‘메이홀’에서 진행 중인 ‘5월 어머니들의 그림 농사’ 특별전을 찾은 강 시장은 “작품에는 오월 어머니들의 평생의 고통과 트라우마, 남편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담겼다”며 “오월어머니들의 기억과 기록의 힘이 80년 5월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어지는 5·18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31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에는 91세 한양님 작가, 88세 강해중 작가, 88세 임근단 작가, 87세 주암순 작가, 86세 안성례 작가, 85세 김순식 작가, 85세 김점례 작가, 84세 장상남 작가, 84세 박화순 작가, 83세 임금자 작가, 81세 김옥희 작가, 81세 박순금 작가, 81세 정귀순 작가, 80세 윤삼례 작가, 78세 이숙자 작가, 72세 이정덕 작가, 69세 김순자 작가, 68세 최은자 작가, 63세 장명희 작가, 61세 윤화숙 작가, 59세 김형미 작가 등 21명의 오월어머니들이 참가했으며, 오월어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 200여 점이 전시됐다. 강 시장은 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43주년 특별기획전인 ‘들불의 기록, 생동의 공간으로’ 전시도 찾았다.



전시는 들불야학이 갖는 교육공간으로서의 현장 모습을 충실히 재현하고, 들불야학의 정신과 설립운영, 투사회보 발행의 역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들불에 몸담았던 들불인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들불야학을 처음 시작한 박기순 열사를 비롯해 강학(선생)으로 함께했던 윤상원, 김영철, 신영일 열사 등을 추모하고, 현재 교육현장에서도 좋은 사례가 될 만

한 ‘진정한 인간의 실현’이라는 교육 목표와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으면서 위계 질서를 탈피한 강학과 학강(학생)의 수평적 관계 등에 주목했다. 강 시장은 1990년대에 태어나 5·18민주화운동과 들불야학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 20대 청년들과 들불야학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강 시장은 “들불야학은 5·18민주화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며 시민 저항의 중심점 역할과 대안언론의

기능을 담당했다. 누군가는 꼭 해야만 했던 들불야학의 역사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시가 열리게 돼 기쁘다”며 “80년 5월을 경험했던 경험하지 않았든 누구나 5·18의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가 마련된 만큼 많은 이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오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들불의 기록, 생동의 공간으로’ 전시는 오는 8월 4일까지 이어진다.

김병수/기자



# 강원도지사'강원특별자치도 출범기념 적금상품'현장가입

일시·장소 : 2023년 5월 18일 10:00~10:30, 강원도청 별관 농협,신한은행 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3.6.11.)을 축하하는 민간의 각종 행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업계 대표주자인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도 이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두 은행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기원하는 도민들의 열기를 북돋우고자 '특별자치도 출범기념 우대금리 적금상품'을 출시하고 5월 초부터 일선 지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도와 양 은행은 공동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각 은행 본점 상품개발팀을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기념 최대 우대금리 상품을 개발했다.

이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두 은행의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을 격려하고 도민

의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각 은행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특별자치도 출범기념 적금상품에 가입했다.

이날, 현장에는 고명한 NH농협은행 강원본부장과 박계원 신한은행 강원도청 지점장이 함께 동석하여 각 은행이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하여 펼치고 있는 각종 홍보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적금상품 출시하는 물론 매장에 특별자치도 현

수막 계층, ATM 화면 내 특별자치도 출범문구 송출, 각종 특별자치도 인쇄 영수증 발급 등 각종 특별자치도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오는 6월 3일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는 춘천 공지천변 플로깅 행사에서 별도의 특별자치도 홍보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기념 적금상품 가입 후에 은행직원들을 격려하며, "적금상품개발은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은행이 흔쾌히 나섰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적금상품의 가입은 이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행렬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이동원기자

## 원주시, 군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 준공...19일 개통

원주시는 1군지사 이전사업과 관련, 군과 합의를 통해 '군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막~우산동 방향의 차량들은 만종리 구)중앙선 철도에 위치한 철도교(가칭 안경다리)를 이용해왔다.

하지만,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부호로 인한 시거 확보가 어려워 병목현상 및 접촉사고 우려 등 교통불편이 가중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16년 사업비 340억 원을 투입해 길이 1.2km, 폭 30m의 상만중 교차로에서 우무개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착공, 올해 4월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19일 오전에

개통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우무개로와 직접 연결된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상만중 마을과 접한 도로로 우회하지 않고도 직접 통행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노약자 등 주민들이 빈번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접촉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철도교 철거로 마을 진입이 용이하게 됐을 뿐 아니라 단계통을 거치지 않고도 우산동과 태장동을 경유할 수 있어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 수송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 철원군, 2023 고석정 꽃밭 봄시즌 개장

지난해만 42만명이 찾던 국민정원으로 거듭난 철원군 고석정꽃밭이 2023년 5월 20일 개장한다. 다만, 봄꽃이 피는 것을 시샘한다는 의미의 꽃샘추위 탓에 꽃밭 내 개화 상황이 좋지 못하다. 따라서 고석정 꽃밭은 5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6월 1일자로 유료로 전환 될 예정이다.

봄시즌에는 양귀비, 안개초, 금어초, 수레국화, 유채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매력 있는 꽃 수종으로 특색있는 공간이 될 고석정꽃밭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 및 지역주민과 연회객 등에게 아름다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휴게공간, 체험거리도 마련된다. 올해 봄시즌 폐장일자는 초하루 낙화 상황에 따라 6월 중순까지 유기적으로 변동된다. 상반기 꽃밭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이지만, 늦어도 매료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는 입장해야 꽃밭 관람이 가능하다. 입장료는 6,000원(3,000원은 지역상품권으로 교환). 지역주민은 입장료가 면제되며, 매주 화요일은 휴무일이다.

■포성이 울리던 군사훈련지가 희망의 꽃밭으로

철원 고석정꽃밭은 불과 9년전만 해도 탱크가 기동훈련을 하고 포성이 가득한 군사 훈련지였다. 1971년부터 포사격 훈련장으로 사용되던 고석정 Y진지에 새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철원군은 훈련장 이전을 추진했다. 2007년 군부대와 포훈련장 이전 합의 이후 2016년 1월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현재의 고석정꽃밭이 탄생했다.

그해부터 주민들은 꽃을 심고 나무를 깎아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조형물을 만들어 꾸미기 시작했다. 코로나19의 유행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야외라는 장점을 활용해 힐링 명소로 거듭났다. 전쟁을 대비하던 포훈련장에 평화의 꽃을 키워간다는 스토리텔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는 의미까지 담아 철원군은 고석정 꽃밭의 대성공을 이뤄냈다.

■2023년 고석정 꽃밭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두배!

그렇다면 2023년 봄시즌 꽃밭은 기존과 무엇이 다를까? 꽃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꽃밭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2배가 됐다고 한다. 올 봄 시행한 부스 확장공사를 통해 기존 10개 남짓하던 먹거리 부스를 16개로 늘려놓고, 철원 특산품인 쌀, 사과 같은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부스도 추가 설치해 철원을 찾는 관광객이 철원의 질 좋고 맛 좋은 특산품을 관광지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SNS 인기명소로 유명한 고석정 '꽃'밭답게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체험거리도 새로 생겼다.

먹거리 부스 쪽에 설치될 화관 대여소가 바로 그것이다. 화관은 소정의 보증금을 맡기면 대여가 가능하고, 꽃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퇴장 시 반납을 하여야 한다. 기존보다 조금 더 넓어진 버스킹 공연장에선 주말 및 공휴일, 하루 2팀씩 공연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3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고석정 꽃밭에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오감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석 철원군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작년 한 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그 사랑에 보답하여 올해도 웃음 꽃이 피는 꽃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세나기자

## 춘천시, 안전한 도시 구축...2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춘천시가 2023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38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관리실태를 평가했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5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이번 평가는 2022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시는 공통·예방·대비·대응·복구 등 5개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뽑혔으며, 강원도 내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등 각종 특전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태백시-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 태백시장배 중고등 학생골프대회 업무 협약식 체결



태백시와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은 지난 18일 태백시청에서 태백시장배 중고등학생골프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 허남양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회장, 연맹 임원 등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 대회 운영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태백시장

배 중고등학생골프대회를 올해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일 동안 1회 대회를 개최하고 2025년까지 3년간 개최하기로 했다. 대회 규모는 전국 중고등학생 선수단 500명 내외이며, 가족 등 동반인원까지 1,000여 명이 태백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오투리조트에서 전국 규모의 골프대회가 처음 개최되는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태백에서도 전국 규모의 골프대회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라며 "대규모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는 원활한 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아낌없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라는 명칭에 걸맞은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전국 규모의 대회를 지속해서 유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상근기자

**금호워터폴리스**

- 상업, 근생, 지원, 단독주택,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 관광숙박시설용지 공급 중

**안심뉴타운**  
ANSIM NEWTOWN

- 일반상업, 준주거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분양문의 053) **350-030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dud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 천안시 최초 12개 대학이 함께하는 어울림 페스티벌 개최

천안시는 처음으로 오는 25일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문광장 일원에서 '2023 천안시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시는 지역 내 12개 대학교인 공주대·나사렛대·남서울대·단국대·백석대·백석문화대·상명대·선문대·순천향대·연암대·한국기술교육대·호서대와 공동 주최해 '천안 대학생의 확실한 행복, 대·학·행'이라는 부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12개 대학, 9만여 명의 대학생이 있는 '대학도시 천안'을 널리 알리고, 대학과의 연계 강화와 협력을 통한 지역 상생 기반 및 대학생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천안시의 특성에 착안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이번 신규 시책은 지역 내 대학생들이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각 대학은 입시준비생에게 학교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는 대학가요제, 동아리 경연, 개막식에 이어 시상과 이벤트를 진행하고, 가수 빌리, 케이시, 에일리의

축하공연과 불꽃놀이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학교별·학과별·동아리별 홍보부스와 대학 입시상담, 체험존, 푸드트럭도 운영된다.

개막 퍼포먼스로는 천안시와 12개 대학이 천안시와 각 대학의 엠블럼을 조형물에 삽입하면서 '대학도시 천안'을 선포한다.

시는 축제 사전계획 단계부터 각 학생처장, 총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 등 36명의 기획단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박상문 천안시장은 "이번 행사는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학 간 연대강화와 함께 주인공인 대학생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신선한 축제로 의미가 상당히 크다"며, "앞으로도 시와 대학이 긴밀히 협력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충남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문화 만든다

### 도, 18일 '제22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표창 수여·특강 등

충남도는 18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충남'을 주제로 제22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과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김태홍 지사와 조길연 도의장, 도의원, 도·시군 공무원, 식품위생 및 소비자 단체 협회, 식품 분야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특강,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식품 안전 관리에 공헌한 식품위생단체 회원, 대학교수 등 민간인과 공무원 총 34명에게 표창장 및 기관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어 음식 평론가, 인문학 박사 등 강사를 초청해 식품 안전과 인문학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윤희려 공주대 교수와 소비자·전문가가 함께하는 음식 문화 개선 토론회를 추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이번 기념식에서는 부대행사로 충남광역시정보컨설팅센터 식품위생 종사자 스트레스 측정·검사, 천안시 '뽕뽕데이' 제과류 시식 및 홍보, 홍성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원 식중독 예방 관련 손 세균 검사(뷰박스 운영), 충남 농산물 활용 추출 음료, 전통 떡 시식 등을 다채롭게 준비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거대한 가능성을 가진 음식산업에서 우리 도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하나가 돼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라면서 "약한 토대 위에 큰 건물을 지을 수 없듯이 확실한 식품 안전 없이는 음식산업의 발전이 불가능한 만큼 식품 안전 관계자 모두 도민의 건강과



음식산업 전체를 책임진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충남형 더(The) 안심식당 등 도내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7~21일 2주간을 '식품안전 주간'으로 정하고 식사 문화 개선,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음식 문화 개선 캠페인 등 '식품안전의 날'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최민식기자

### 진천군 "예비맘, 숲에서 아기와 힐링하고 교감해요"

진천군보건소는 임신부 출산·건강 증진교실 및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생겨진천 치유의 숲에서 '임신부 건강증진 숲태교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임신부와 태아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한 태교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진천군보건소에서 8주간에 걸쳐 진행 중이다.

숲에서 나는 새와 바람소리, 꽃과 나무향기, 아름다운 풍경, 나무에서 나오는 치유인자 피톤치드 등이 임신

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특히 힐링차 마시기, 임신부 스트레스 측정 및 상담, 자연 재료를 활용한 손수건 만들기, 숲길 걷기, 태아 교감 호흡과 명상, 봉제조, 임신부에게 중요한 영양소 섭취 안내 등 알찬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꾸려지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중에 태아는 엄마와 정서 상태를 공유하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태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엄마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제35회 여주 도자기 축제' 개막식 참석



박경귀 아산시장이 19일 여주시 신록사 일원에서 개최된 '제35회 여주 도자기 축제' 개막식 참석을 위해 자매결연도시인 여주시를 방문했다.

1990년 시작된 여주 도자기 축제는 여주시를 대표하는 축제다. 5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펼쳐지는 올해 축제는 전통 도자기의 예술적 가치를 계승·발전하고 도자기 문화의 대중화, 세계화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전시행사 등의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축소됐던 축제가 3년 만에 정상 규모로 재개되면서 축제를 통한 자매도시들과의

교류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시 초청으로 개막식에 참석한 박경귀 시장은 "3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은 축제의 개최를 축하드린다"며 "아산과 여주의 긴 인연을 발판 삼아 더욱 많은 분야에서 상호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두 도시는 지난 2005년부터 18년간 문화·예술·축제 등의 교류를 주축으로 활발한 자매결연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엔데믹을 기점으로 더욱 적극적인 교류와 상호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 괴산군 공무원, 영농철 맞아 농촌 일손돕기 나서

충북 괴산군 공무원들이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보냈다.

지난 19일 기획홍보담당관실 직원 19명은 연풍면 갈금리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적과 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정경범 기획홍보담당관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시름이 깊어진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달려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주민복지과 직원 15명도 청안면 백봉리 여성농업인 농가를

찾아 사과 열매 숙아내기 작업을 하며 힘을 보탤다.

장병란 주민복지과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일손돕기에 나섰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움을 받은 농가주는 "일손 부족이 심화되어 걱정하던 차에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을 도와준 직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며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원호기자

### 제천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초청 특강 성료



제천시는 18일 오후 2시 한방생명과학관 1층 다목적강당에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위기로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는 이제 경영의 필수조건이자 생존전략으로 정착됐으므로 지자체도 ESG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UN 사무총장 시절 중요하게 추진한 것으로 파리기후변화협약, 지속가능발전목표, 여성인권을

언급했다.

이날 특강에는 김창규 제천시장과 공직자,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특강에 앞서 반기문 전 총장은 김창규 제천시장과 환담을 나누며 과거 인연에 대한 소회를 나눴다. 이어 환영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 호응을 얻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바쁜 일정 중에 제천시를 방문하신 반기문 총장님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강연을 되새겨 친환경 도시 제천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음성품바축제, 절정 향해 내달려

### 20일 전국 품바 길놀이 퍼레이드, 2판4판 난장판으로 음성이 들썩인다

음성을 설성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음성품바축제 셋째 날에는 글로벌 품바 래퍼 경연대회로 또 한 번 함성과 열기로 축제장이 빛났다.

음성, 품바, 나눔, 사랑, 풍자, 해학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한 제7회 글로벌 품바래퍼 경연대회에 치열한 경쟁을 뽐낸 12팀의 래퍼들은 다른 스타일의 품바 랩을 선보이며 저마다의 실력을 뽐냈다.

축하공연자로 원슈타인이 무대에 올라 관객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품바축제장은 MZ세대를 비롯해 모든 세대가 한데 어우러졌다.

음성품바축제가 개막한 지 넷째 날, '나눔의 날'인 20일을 맞아 축제는 절정을 향해 치달고 있다.

이날은 ▲오늘의 품바(춘심야) ▲품바LIVE(감나무) ▲품바왕선발대회(예선) ▲2판4판 난장판 ▲천인의 비법담 나누기 ▲전국 청소년 품바댄스 경연대회 ▲전국 품바 사진촬영 대회 ▲버스킹 공연 및 MZ존에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저녁 6시30분 음성을 시가지에서는 음성품바축제 대표 프로그램의 협조로 상인회 회원 점포 15곳에서 화장실을 개방해 퍼레이드 참가자와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더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길놀이 퍼레이드에 이어 8시30분에 야외음악당에서는 2판(길놀이퍼레이드+난장판) 4판(놀자판+난장판+어울림판+나눔판) 난장판이 열린다.

2판 4판 난장판은 길놀이 퍼레이드 참가팀과 축제장에 있는 모든 사



람인 전국 품바 길놀이 퍼레이드가 벌어진다.

퍼레이드는 주민과 관광객 등 1천여 명이 참여해 음성을 시가지를 한 바퀴 행진하며 품바분장을 하고 거리에서 단체플레이시움과 막춤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참여 단체마다 특색있는 분장과 공연으로 무지개와 같은 형형색색의 빛깔이 거리를 수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음성시장상인회(회장 이병



람이 다 함께 춤추고 즐기는 댄스 한마당 잔치다.

무대의 DJ 주도 아래 1천여 명의 퍼레이드 참가팀과 관광객이 7080 EDM 음악에 맞춰 춤추며 즐기는 광경은 모두가 빠져들게 만든다.

전국 청소년 품바댄스 경연대회에는 전국에서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2팀이 출전한 댄스 실력을 뽐내며 제이블랙과 오천의 축하공연까지 더해져 그 화려함이 더해진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1일(일)에는 '아버지 아버지' 뮤지컬 공연과 대망의 품바왕 선발대회 결선이 기다리고 있다.

이어 저녁 6시 전국 품바 가요제(축하공연 윤수현)를 끝으로 제24회 음성품바축제는 5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음성품바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전국 품바 길놀이 퍼레이드와 품바왕 결선으로 축제가 절정에 달할 것이다"며 "오셔서 올해의 축제를 맘껏 즐기고 행복한 추억을 가져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식기자

### 옥천군, 꿈에 그리던 뱃길 열린다

충북 옥천군이 대청호 도선 운항을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딘다.

19일 옥천군에 따르면 대청호 내 친환경 전기도선 운항을 위해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진행해오던 협의가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대청호 규제를 풀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환경부에 끊임 없이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으며, 마침내 값진 노력의 결실을 얻었다.

지난해 5월 3일 환경부가 지역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 차원에

서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권역 내 친환경 도선 운항을 허용하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11월 금강유역환경청에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 계획(안) 협의서를 제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4차례의 걸친 보완 요구에도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7개월간의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황규철 옥천군수가 올해 1월 말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취임 인사를 겸한

방문에서 본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며 열의와 의지를 보이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사업비 110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오는 6월부터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이러 오는 10월 착공 후 2025년 11월까지 선착장 및 임시계류장 8개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도선 2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 도선이 운영되면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옥천군의 숙원인 대청호 뱃길은 옥천군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실"이라며 "순풍에 돛 단듯 거침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 2023 경상북도교육청 발명&메이커 축제 개막

- '발명메카에서 상상을 땀글다!'란 주제로 발명메이커 축제 개막돼  
- 임종식 교육감, "학생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

경북교육청이 주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이 주관하는 '2023 경상북도교육청 발명&메이커 축제'가 지난 19일(금), 발명체험교육관 야외광장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이번 축제는 '발명메카에서 상상을 땀글다'라는 슬로건으로 발명과 메이커가 만난 첫 융합 축제다. 축제 첫날 도내 15개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1,300여 명이 발명체험교육관을 찾아 총 65개의 체험 및 전시를 즐겼다.

특히, 이번 축제는 발명과 메이커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디자인하고 결과물을 전시하는 것에 중점을 둔 '재움코스', 3D와 VR 등 기술적 요소에 중점을 둔 '키움코스' 특화·경쟁·자체 제작 체험에 중점을 둔 '해움코스' 총 3개의 코스로 운영된다.

또한, 40가지 발명 원리를 적용한 아이디어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발명 아이디어톤'

대회도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발명 아이디어톤'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학생은 "답임선생님, 친구들과 경주에서 새로운 대회에 참여하고 이틀간 축제를 즐기며 멋진 추억을 만들었다"고 설레는 소감을 전했다. 체험 및 전시 부스 외에도 현장 참



여형 부스로 열리는 토너먼트식 미니사구대회는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생동감 넘치는 레이스 경기로 축제의 열기를 높여 주었으며, 걸어나다며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카메라 인형은 축제를 찾아온 학생들에게 발명&메이커

축제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 주었다. 임종식 교육감은 "발명과 메이커가 만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축제를 준비했다"며 "이번 축제가 학생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발명&메이커 축제는 20일(토)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모든 체험비는 무료로 발명과 메이커에 관심 있는 많은 가족들이 주말을 이용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 효율성 높인다.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마련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에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후 학교설립 추진 시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학교 신설 ▲학교 신설하면서 복합시설 설치 추진 시 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이에 따른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의 주요 내용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기준 설정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사항 체크리스트 마련 ▲학교설립 신설 대체 이전 추진 기준 변경이다.

우선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학교설립 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무분별한 학교설립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 학교설립 재원, 지속가능한 학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수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른 일반 학교 최소규모의 적정학급 학급 기준은 초 24학급, 중·고 21학급이며, 통학이 극히 불편한 지역이거나 학교 미설립 시 인근 학교가 과대 학교가 되는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최저 18학급으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유발 요인, 예정 학생 수, 통학 여건 등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해 이전할 때 추진기준인 학부 모동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해 학교설립의 효율성을 높였다.

사업비 전액이 민간 자본인 경우 안정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 유의 사항 등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5월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화성시 가칭 봉담2-1초(일반 28학급, 총사업비 279억 원)와 신설 대체 이전인 경안초(광주), 안성중(안성)의 경우 경기도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통과한 첫 사례"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앞으로 도내 과대·과밀 해소와 학교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울진교육지원청, 2023년 기록관리 교육 시행

경상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은 5월 19일 관내 학교 및 소속기관 기록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제1차 기록관리 업무담당자 교육을 시행했다.

울진교육지원청은 오늘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 4차에 걸쳐 기록관리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울진교육지원청은 올해부터 기록연구사가 배치되어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1차 교육은 기록관리 업무담당자들에게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기록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했으며, 특히 각급 학교에서 생산되는 특수 유형 기록물관리에 대하여 집중 교육했고 보관기록물 폐기를 위한 준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기록관리 업무담당자들이 평소 궁금하고 어려웠던 부분에 관한 토론과 질의를 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 기록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울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기록관리 인식과 실무능력이 높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담당자뿐 아니라 나아가 교직원들에게도 기록관리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학교 기록관리 수준과 인식을 높이고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 청소년이 바라는 새로운 담양' 제2회 담양군 청소년 사회참여 아이디어 발표대회 개최

담양군이 '청소년이 만드는 새로운 담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이 바라는 새로운 담양의 청사진을 위한 청소년의 정책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담양군은 오는 6월 23일까지 '제2회 담양군 청소년 사회참여 idea 발표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제2회 담양군 청소년 사회참여 idea 발표대회'는 담양군과 담양교육지원청이 공동주최하고, 담양군 청소년수련원이 주관하며, 오는 7월 18일에 본선 대회를 개최한다.

2022년도 처음 시작되어 올해 2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더 풍성한 시상금과 내실있는 구성으로 청소년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담양 실현을 위한 정책'이던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홈페이지와 국제청소년교육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본선 대회를 거쳐 발굴된 우수 제안은 실현 가능성과 예산확보 등 관련 부서별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제2회 담양군 청소년 사회참여 아이디어 발표대회'가 청소년이 바라는 담양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 담양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홍곤/기자



## 동양초, (재)독도재단과 함께하는 '2023 독도 바로알기' 교육

"독도! 알아야 지킨다!"

동양초등학교는 지난 16일(화), (재)독도재단과 함께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수호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독도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동양초등학교는 지난 2020년 독도 지킴이동아리 '독도깨비'(지도교사 양만주)를 창단하여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2021, 2022 독도지킴이학교로 지정되어 활동 중이며, 2021학년도 초등부 우수학교, 2022학년도 초등부 최우수 독도지킴이학교로 선정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찾아가는 독도전시회, 독도 영상

제 참여 등 특색있는 독도교육을 예고하여 기대를 품게 하고 있다.

이번 '독도 바로알기 교육'은 독도 지킴이동아리 학생들이 자체 제작한 독도사랑 티셔츠를 맞춰 입고, 2시간 동안 현장강의와 독도골든벨 행사로 진행됐으며, 독도재단 독도교육 전문강사 파견으로 다채롭고 차별화된 전문적인 활동으로 진행되어 독도지킴이 동아리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수호 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독도교육의 장이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독도지킴이동아리 회장으로서 교육에 참여한 6학년 K모학생은 "비록 독도골든벨에서 우승을 못했지만 퀴즈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학

습한 독도에 대한 진실과 독도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독도지킴이동아리로서 최선을 다해 독도를 수호하겠다"라며 독도수호에 대한 다짐을 전했다.

정금자/기자



## 2023년 영양군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산나물축제 공연

몸튼튼 체력 짱! 신나는 트램폴린 토크댄스

영양군공립형지역아동센터는 지난 5월11일부터 5월 14일까지 개최된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 축하공연에서 '몸튼튼 체력짱! 프로그램 트램폴린 토크댄스'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연습한 트램폴린 토크댄스를 선보이며, 아동들에게는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에는 센터에 대한 홍보와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또한 산나물축제의 첫 공연으로 방문하신 분들에게 아이들의 활기찬 울음으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웃음을



자아내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경미 영양군공립형아동센터센터장은 "이번 산나물축제를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더욱 크게 키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이후 군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뜻깊은 축제를 마련할 수 있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더불어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의성교육지원청, 2023년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5월 19일 10시에 2023년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관내 학교장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여성가족부 지침 개정에 따라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별도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가 됨에 따라 2023년에 1차로 학교장 대상으로 우선 교육이 실시됐다.

의성교육지원청에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의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에 대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위직 별도로 대면 교육이 원칙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 고위직에 의한 4대 폭력 예방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김성완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을 담당하고 지원하는 각 기관의 최고의 고위직들이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작은 실수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 위한 현장 지원 강화

-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를 통한 맞춤형 교육 기반의 교육 혁신 주도  
- 임종식 교육감, "학생 스스로 학습 과정을 성찰하는 경험하도록 현장 지원 강화"

경북교육청은 지난 19일,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언어·수리·디지털 등 기초 소양 강화 ▲현장의 자율성 강화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 강화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 구축 등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을 통해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와 교육과정 자료 제작 및 보급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5월 18일(목), 일반계고등학교 교감 52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이해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이해를 주제로 연수를 실시해 관리자의 역량을 키우는 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6월 2일(금)에는 일반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및 지원단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자료를 공유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단위 학교 선택 과목 확대, 공동교육과정, 소인수과목 운영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수

업량 적정화, 과목 재구조화 등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원학습공동체 7팀을 운영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 신설 과목 교육과정 분석, 교과 각론 이해 및 교과 교육과정 편성 모델 연구 등 현장 중심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는 교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향후 정책 운영에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는 모든 교원이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습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학습 과정을 성찰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남원시,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편' 연매출 30억이상 가맹점 등록제한, 개인 구매한도 축소

구분	2022년	2023년
가맹점	• 법상 중소기업이면 허용 • 지자체 조례·지침으로 추가 제한	• 지침으로 통일적 기준설정 -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 • 지역 여건에 따라 업종 제한 병행
구매한도	•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 1인당 월 70만원 이내
보유한도	• 별도 제한없이 지자체 자율	• 1인당 최대 150만원 보유
할인율	원칙 • 10% 이내 지자체 자율	• 변동없음
	예외 • 15%까지 한시적상향 허용	• 구체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새로운 개편안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고 미 이행시 패널티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시 행정은 물론 시민의 의문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상공인 지원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겠다는 이번 행안부의 개편안은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으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또한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으며, 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는 사용처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남출/기자

## 경북도, 로컬과 기업이 만들어가는 상생의 가치, STAXX가 앞장선다

### STAXX 내 소셜벤처 8개사 입주, 사업 고도화 위한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제공

경북도는 18일 영주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인 STAXX 소셜벤처들의 사업 경과를 점검하고 프로젝트의 주요 주체가 함께 모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중간 공유회 'STAXX REPORT'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규원 SK스페셜티 사장, 송호준 영주부시장, 심재연 영주시의장, 김광조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추진팀장(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STAXX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STAXX는 2021년 12월 경북도, SK스페셜티, 영주시, 임팩트스퀘어가 '영주 경제 속으로'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행된 사업이다.

SK스페셜티가 기부한 50억원을 마중물 삼아 △액셀러레이팅 △창업 생태계 구축 △거점 교류 공간 조성 △투자펀드 운용 등 총 4가지 핵심 사업을 운영 중이다.

액셀러레이팅에서는 8개의 소셜벤처를 선발해 영주 사과를 활용한 음료 생산,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숙박 시설 제공, 주류 개발 등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 경북도와 외부기관의 투자, SK스페셜티 기부금 일부를 통해 조성된 '경북 청년팍곰 ESG 벤처펀드'는 최초 목표였던 50억원 조성을 달성했다.

이 투자 펀드는 STAXX 소셜벤처는 물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소셜벤처에 투자되어 기업의 빠른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중간 공유회는 사전 행사인 공개 IR을 시작으로 개막식, 주요 이해관계자 패널토론, 지역 소셜벤처들의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공개 IR에는 STAXX 선발을 희망하는 지역의 4개 청년 기업(팍곰삼, 농업회사법인 함소, 으뜸, 바이루트)이 참여했으며, 추후 심사를 거쳐 이 중 우수기업을 STAXX 투자 및 육성 대상 기업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어 진행된 파트너십 리포트에서는 STAXX 프로젝트를 투자 및 지원, 육성하는 기업과 기관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협력을 통해 만드는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주제로 발표 및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구영모 행복나래 대표와 박철준 지역과 소셜비즈(경상북도 사회적 경제기업 통합지원기관) 대표 등이 참여해 지역의 제한된 자원으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협력방안과 지역 소셜벤처의 성공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끝으로 지역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소셜벤처들이 참가해 "더 나은 로컬을 만드는 현장 공론"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로컬의 장소, 일상, 사회적 가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더 나은 로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번 중간공유회를 통해 경북도, SK스페셜티, 영주시, 임팩트스퀘어는 STAXX 소셜벤처 기업의 성장과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규원 SK스페셜티 사장은 "이번 중간 공유회를 통해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소셜벤처의 상품이 전국에 널리 알려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영주에 모여들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라며 "앞으로도 경북도, 영주시와 힘을 모아 STAXX가 전국 최고의 창업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 사회와 동반성장에 가치를 두고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SK스페셜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에 더해 새로운 가치와 의미들이 STAXX라는 공간을 통해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고 성공적인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청년교류 공간 STAXX에서는 로컬의 다채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는 전시가 열린다. 요즘 세대가 그리는 지역의 삶을 공간으로 담아 보여주며, 사회적 가치를 담은 소셜벤처의 상품과 영주의 여성, 청년창업기업들의 상품도 만나 볼 수 있다.

윤근수/기자

### 방위사업청, K-방산 투자활성화를 위해 방산업계-금융투자업계 손잡는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방산업계와 금융업계 간 상호협력 수단을 통해 업계간 협업을 지원 중이며,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5.17일 16시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한국금융투자협회간 "K-방산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혁신펀드 조성(23~25년간 총 1,200억원) 및 투자, 방산기업·협력사 등에 대한 정책금융지원(23년 3.1조원 이상), 방산 수출 금융강화 등 방산 금융지원 강화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번 업무협약도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금융권의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우리 방위산업에 대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 민간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

한 취지이다. 양 기관은 이 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투자회사-방위산업체 간 설명회 등을 통한 정보교류 기회 마련, 방위산업과 관련된 펀드 등 투자상품 개발, 기업공개 등을 통한 자금유치 등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방산기업의 투자·고용·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민간 금융시장을 통한 충분한 자금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망기업의 발굴과 자금공급 기회 확대, 신규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등을 가속화하여 방산기업-금융투자회사-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최광수/기자

### 경산시, 지역 화장품산업 육성에 박차

#### 일본 수출상담회 참가, 지역기업 수출계약 성과 올려

경산시가 추진하는 화장품산업 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 대구·경북 뷰티기업 일본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지역 기업들이 현지 수출계약을 맺는 등 성과를 거뒀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의 시나가와 프린스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수출상담회에 경산시는 대구·경북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뷰티산업 융·복합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참가해 지원사업의 성과물인 화장품, 뷰티디바이스, 화장품 소재 등에 대한 해외 시장 진출 지원과 지역 내 우수 뷰티 기업 홍보 및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했다.

'뷰티산업 융·복합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5월 총사업비 100억원(5년간)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하여 뷰티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제품화, 판매에 이르기까지 뷰티산업의 전·후방 산업의 연계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특히 지난해 공모 선정 후 6개월 정도의 짧은 사업 기간에도 일자리 창출 26명, 매출성장률 117% 달성,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38개의 제품개발 101건,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29건, 임상시험 및 효능검증 14건,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14건,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 내 홍보 및 판매 지원 등의 폭넓은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지역 내 8개사(㈜제이랩스(주)미진화장품, ㈜알래스카드림, ㈜티나, 라사, ㈜알앤유, ㈜유바이오메드, 아발리코코리아)가 수출상담회에 참석했으며, 해외바이어 21개사와 총 52회 상담이 진행



됐다.

특히, 이번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제이랩스는 이번 상담회를 통하여 일본기업(HIDE COSME co.,Ltd)과 엔화 5,000만엔(한화 약 5억원)의 수출계약을 맺는 등, 경북도와 경산시에서 추진하는 K-뷰티 지원사업의 성과도 마주할 수 있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이 보유한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화장품산업과 기업이 보유한 잠재력을 일깨우고,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던 해외 시장의 수출과 수출중심형 강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송광삼/기자

http://chunhyang.org

# 빛을그리다

## 2023.5.25<sup>목</sup> ~ 5.29<sup>월</sup>

### 제93회 남원 춘향제 Chunhyang Festival

• 주최 | 남원시  
• 주관 | 제93회 춘향제전위원회 • 후원 | 전라북도



# 안산 청석 어울림 한마당 운동회 성료



최근 안산청석초등학교에서는 개교기념일과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안산청석어울림한마당 운동회가 열렸다. 이번 운동회는 코로나 이후 약 4년 만에 열려 학생들의 많은 기대를 받으며 진행되었다.

청석초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전교생이 참여했고 학부모회가 운영을 맡았다.

**이우창** 교장선생님이 대회장으로 총괄하였고, 운영위원장 류정은, 학부모회장 김민주, 박천광 안산자유총연맹 회장, 문기주 태권도외교단의 총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우창 교장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행사가 열리는 뜻깊은 날이니 가족들과 친구들과 뜻깊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라며 '여러분이 나라의 미래다. 미래의 한순간에서 오늘을 기억하며 즐거워하기를, 모두가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승리하기를 바란다'라고 대회사를 하였다.

또한 '이번 운동회를 통해 친구들과의 협동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 정정당당한 경쟁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가기를 당부했다.

류정은 운영위원장은 '몇 년 만에 열린 운동회라서 아이와 부모님들 모두의 기대가 크다. 아이들의 즐거움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민주 학부모 회장은 청석 어울림 한마당 운동회가 개최되기까지 류정은 운영위원장님, 이우창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컸으며,

4년 만에 개최되는 운동회가 학생들에게 추억이 되는 거룩한 운동회가 되기 바란다고 축사했고, 학부모회는 행사의 운영 전반을 맡으며 사고없이 경기가 치러질 수 있게 짜임새 있는 준비로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

경기는 청백전으로 파워볼 굴리기, 장애물 달리기, 공주머니 던지기, 한마음 줄다리기, 청백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구성이 많았다.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운동회 이름에 걸맞게 대회는 학부모와 조부모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상품과 청백전의 점수를 걸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운동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던 이어달리기 경기에서는 어른들의 열띤 응원에 아이들은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경기에 임하는 친구들의 함성과 응원소리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무르익었다.

한편, 안산 청석초등학교는 2006년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17주년의 역사가 있는 학교다. 개교기념일은 5월 4일이며 현재 488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우창 교장은 2021년 제4대 교장으로 부임했다. 학교에서 '참 승'이라는 애칭으로 유명하다. 학생과 함께하는 행복에 뜻을 두며 40년 교직 생활에 전념해왔다. '오늘 행복한 어린이가 미래에도 행복하다'라는 표어로 청석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최만식/기자



“  
함께해요 행복출산,  
같이해요 든든육아  
”

우리를 위한 선택! 선택을 돕는 지원! 경상북도가 행복을 키워줍니다



**결혼·청년**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1인 1,060만원)
-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춘남녀 만남지원
-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



**임신·출산**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소득 불문)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 다자녀가구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돌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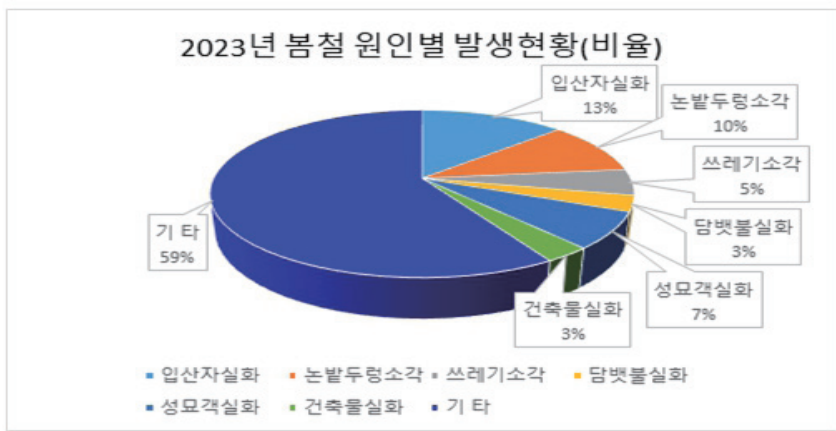
- 어린이집 전 계층(0~5세) 무상보육
-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초등학교 마을돌봄터 운영
-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부담 경감(90~100%)





### 경북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 산불피해 크게 줄어...

경북도 산불발생 건수 전년대비 30%, 5년 평균 대비 15% 감소



경북도는 지난 15일 산불조심기간 해제에 따라 봄철 산불대책본부를 종료하고 평시 산불체제로 전환한다.

올해 봄철 산불대책기간(1.1~5.15) 동안 60건의 산불이 발생해 527ha의 산림피해를 입었다. 이는 지난해 봄철 발생한 85건 1만7천173ha 보다 건수대비 약 3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법정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 보다 한 달 앞선 1월 1일부터 선제적으로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했으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행위 금지 행정명령 발령, 도 기동단속반 운영, 산불예방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올해 봄철 산불 발생현황을 살펴

보면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이 전체의 28%를 차지해 국민적 인식개선과 예방활동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기별로는 2월 하순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고, 4월 상순에 가장 넓은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경북도는 산불조심기간이 종료됐지만 산불방지인력과 임차헬기 등 진화지원에 산불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5~6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관리와 진화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마무리됐지만 산불위험은 여전히 높은 만큼 산불예방과 진화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은평구, 음주운전 근절 합동 캠페인

김구청장 "음주운전 근절...올바른 교통문화 인식 확산 기대"

서울 은평구는 18일 오후 2시 북한산성 입구 일대에서 은평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통문화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한 합동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스쿨존과 인접한 북한산성 입구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각 관계 기관은 음주운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활동으로 어깨띠를 두르고 예방 수칙 및 법칙금 등이 표기된 안내 전단을 배부했다.

북한산성 입구 주변에서 음주 단속과 계도 활동도 펼쳤다. 주간 시간대 단속을 통해 주야간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시민참여 행사로는 음주 진단과 음주 고글 체험을 진행했다. 시민

들은 음주 감지 성능이 뛰어난 복합감지기를 체험해 보고, 음주 고글을 착용해 음주 상태에서는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 상태를 겪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음주 고글을 착용하면 시야가 왜곡되고 어지러워 음주한 것처럼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한편 구는 야외활동이 많은 행락철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벌였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차로 좌회전,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을 알리고, 관련 법칙금(음주운전 : 자전거 3만, 킥보드 10만)도 안내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이 음주운전 근절 등 올바른 교통문화 인식을 확산시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당정.

### 단독

충남지역의 음주사고와 음주단속 현황을 살펴보고 실태를 점검해 본다

최근 잇따른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정이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주야간 구분하지 않고 주 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하며, 특히 스쿨존 및 관광지 등 취약지 대상으로 맞춤형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으며 음주운전 재범방지의 효과적인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자는 오랫동안 충남지역에서 거주하며 위 내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하였고

그간 충남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많은 제보와 취재요청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원인과 현 상황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면 그 실태를 점검해보고자 취재를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우선 충남경찰청 교통안전계를 방문해 계장과 면담을 통해 충남지역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단속 현황 그리고 음주단속 주요 장소 현황에 대해 수집된 2년 이상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22년과 23년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한정된 기간을 정하여 천안(서북, 동남), 아산, 당진, 서산 경찰서 별 4개 지역의 자료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정해진 기간을 비교해 볼 때 서 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음주자 발생 건수는 22년 195건, 23년 144건으로 줄었으며 음주단속 실시 횟수는 소폭 증

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공된 자료의 기간이 22년과 23년 1월부터 5월까지로 국한되어 있고 그전 자료는 받을 수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결과와 다르게 충남도민들이 체감하는 음주 운전자들의 운행 행위에 대한 염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음주운전 일제 단속 활동도 별로 목격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불 때 형식적 수치의 자료만으로는 도민들이 갖는 음주단속 활동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부서의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일선의 교통관리계의 관리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묻자 "일반도와 시, 군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비해 경찰관의 수가 부족하여 각종 사고와 민원 처리가 주 업무로서 음주단속에 전력을 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였고 저녁 퇴근 시간대와 10시 이전에는 차량 정체를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일로 인해 단속을 할 수 없어 10시 이후부터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어 도민들의 시각에서는 단속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렇다면 당정이 지시한 음주운전 단속지침을 살펴볼 때 경찰관서에서 해명했던 주장과 상반된 내용으로 주, 야간 구분 없이 취약지 대상으로 맞춤형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때와 장소, 여건 상황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절절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의무사항인데 이러한 사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질서 확립에 심각한 오류이자 직무수행에 대한 방관이 아닌가

교통안전계 '23. 5. 15. (월)						
음주 사고 현황						
□ 서별 음주사고 현황 '23. 1. 1. ~ 5. 10.						
구분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당진
'23년	144	48	28	21	34	13
'22년	195	76	26	22	41	30
대비(%)	-51(-26.2)	-28(-36.8)	2(7.7)	-1(-4.5)	-7(-17.1)	-17(-56.7)
□ 서별 음주단속 현황 '23. 1. 1. ~ 5. 10.						
구분	계	서북	동남	서산	아산	당진
'23년	588	182	82	76	153	95
'22년	557	196	79	76	127	79
대비(%)	31(5.6)	-14(-7.1)	3(3.8)	0(0.0)	26(20.5)	16(20.3)
□ 서별 음주단속 주요 장소 현황						
구분	장소					
서북	두정동(한국전력), 불당동(운동장사거리), 성정동(여성회관사거리)					
동남	안서동(태조산터널), 신방동(평화약국), 유량동(삼우모터스)					
서산	읍내동(대산목삼거리), 석남동(소망교회), 인지면(둔당교)					
아산	둔포면(둔포중 입구 삼거리), 탕정동(김필성), 모충동(투썸플레이스)					
당진	수청동(롯데시네마), 읍내동(안신마트), 채운동(육돌고개)					

심히 우려된다.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사전 계도와 홍보활동이라 여겨지며 이는 경찰관서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정적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 사고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 희생되어 가정생활이 힘들어지고, 등. 하곳길에 학생이 까달

없이 숨겨거나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하는 등의 음주 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악으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로서 관련 부처 및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서에서 화려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전 계도,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어떤 교통상황에서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

김원호기자

### 익산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기간 운영

미등록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익산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22일부터 6월9일까지 3주간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한다.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신청은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12, 동물판매업소 4)에서 내장형과 외장형 중에서 선택해 등록 가능하다.

시민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등록한 경우 마리당 2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단속반은 반려견 동반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인의 목줄착용, 배설물수거 등 외출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함께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은 필수로 등록해주시기 바란다"며, "목줄 등 안전조치 및 배설물 수거 등 올바르게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반려인이기라면 준수해 주세요!**

-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착용 및 안전띠 착용 필수! (반려견 목줄 길이: 100cm 이하, 안전띠 착용 필수)
- 2개월령 미만의 개는 시군구 또는 동물보호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설물수거를 꼭 하주세요.
- 반려견은 공공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 반려견은 공공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노인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서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비반려인이기 알아두면 좋은 팁!**

-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뚫어 보지 마세요. 공격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와 허락을 받으세요.
- 타인의 반려견에게 건넬 음식이 먹이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 타인의 반려견에게 건넬 음식이 먹이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 타인의 반려견에게 건넬 음식이 먹이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 고향 살리고 혜택도 받는 의성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의성군**

**쉬운 기부 지역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 답례품 구입 → 지역 특산품 생산 → 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1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0%  
3만원 상당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기부한도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 공제 : ~10만원(100%), 10만원 초과~500만원(16.5%)



# 국내기술로 만들어진 신한울1호기 원전사업



신한울1호기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일원에 2010. 4. 30. 부지정지 착수부터 지난 해 12월, 1호기 준공까지 12년간, 시설용량 1,400MW급 2기 신형가압 경수로 (APR1400)를 한국전력기술(주) 설계, 두산에너지빌리타가 주요설비 공급,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연료공급을 담당해,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GS건설의 공동수급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이 사업은 2000. 1. 5 장기전력수급계획 확정, 2002. 5.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 2005. 6. 8 건설기본계획 확정, 2009. 5. 29 종합설계 용역 계약 체결, 2010. 4. 30 부지정지공사 착수, 2011. 12. 2~3 건설허가 취득 및 본관기초 굴착, 2012. 5. 15 공사계획인가 취득, 2014. 4. 30 원자로 설치, 2015. 3. 1 초기전원가압, 2016. 11. 1 상온수압시험 착수, 2017. 9. 7 고온기능시험 착수, 2021. 7. 9 운영허가 취득, 2021. 7. 17 연료를 장전해, 22년만인 지난해 12월 7일부로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이렇게 긴 기간에 걸쳐 준공된 신한울1호기 준공은 원전발전에만 큰 역사적 의의가 있다.

▲첫째, 핵심기자재를 국산화한 원전(APR1400)으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국내 원전 기술력과 건설능력을 확실히 입증했다. 즉, 원자력발전소의 핵심설비인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및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국산화 기술로 이뤄낸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준공이다.

▲둘째, 정부 에너지 정책에 기여와 원전산업 제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의의가 있다.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위한 에너지 구축과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1호기 준공으로 '2021년 국내 총 발전량 기준 약 1.81%인 10,424GWh 전력 생산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에 기여했으며, 이는 경북 연간소비량의 23.5% 수준이다.

▲셋째,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 의의가 있다. 건설기간 중 연인원 530만 명, 300여 개 협력업체 참여를 통한 고용창출과 원전산업계 기반을 구축했으며, 신한울1호기 준공으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 확보 및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및 수출역량 결집에 큰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안전 최우선' 원칙의

2조원 규모의 법정지원금(60년 운영기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주민과 화합하고 상상하는 발전소가 된 것이 신한울1호기 준공에 큰 의의가 있다.

국산화 설비가 적용된 선행호기 대비 개선사항으로 ▲원자로냉각재펌프(RCP)는 축소모델을 개발, 시험설비 구축(2007.10.~2012. 2. Nu-Tech2012)했으며, 시제품 및 본품 설계·제작, 규제기관 안전성 점검으로 2012.1~2015. 11까지 본품 RCP 제작 및 성능시험 수행했고, 2014.3~2015 11월까지 13회에 걸친 규제기관 안전성 점검/개선사항 6건을 2016년 1월에 반영했다.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은 2001. 7~2008. 4월 KNICS가 연구개발, 2007. 8~2010. 7월에 상용화 검증/美 NEA/IAEA 등 해외전문가 자문을 수행했고, 설계/제작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검증, 성능시험, 규제기관 안전성 검증으로 시제품 신뢰성 및 운전이력 확보를 위한 실증시험 수행(두산)하고 규제기관 안전성 점검(8회) 및 2017. 6월에 개선사항 199건을 반영하고, 2019. 12월 MMIS 성능시험 민관참여 시연회를 개최해, 소외전문가 등 사고상황을 가정해 MMIS로 사고완화설비 작동을 시연하는 등 선행호기 대비 개선사항을 추진했다.

신한울 1호기 수출원전의 가치는 ▲국내기술로 개발한 제3세대 신형원자로형(APR1400)으로 UAE 수출 노형과 동일한 노형으로 우리나라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원전건설 능력을 세계적으로 알린 계기가 됐고, ▲해외수출 원전의 참조 발전소로서 UAE, 이집트와의 수주 계약 체결로 세계 6 번째 원전수출국으로서 추가 해외 원전 수출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참고로 UAE 원전 수출은 약 21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2차추 건설사업 수주는 약 3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원전 수출 사업이다. ▲또, 수출 노형인 EU-APR은 2017년 유럽사업자

DC 인증 심사도 순조롭게 진행돼, 2019. 8월 설계인증 취득을 완료, 안전성 및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았고, ▲유럽 사업자요건(EUR) 인증 심사와 미국 NRC-DC 인증심사 양대 인증을 취득한 나라는 미국 이외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하고, ▲원전 후발국가들은 원전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불과 30년 만에 원전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를 최적 모델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전건설 및 운영경험의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로 한국은 그동안 지속적 국내외 원전건설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건설·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강력한 공급망을 확보했고,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부, 유관기관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UAE 수주 이후 체코, 폴란드 등 추가 원전 수출을 추진하며 수출원전으로서의 가치를 완벽하게 입증하고 있다.

올 4월말 기준, 국내원전 건설은 신한울2호기, 새울3,4호기와 신한울3,4호기가 건설중이다.

▲'새울3,4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암리에 PWR(APR1400)의 원자로형으로 시설용량은 1,400MWx2기로 2016. 6월 착공, 2025. 10월 준공할 예정으로 한기(주)가 종합설계용역, 두산에너지빌리타(주)가 주기를 공급하며, 삼성·두산·한화가 주설비공사를 담당,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원전연료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새울3,4호기는 87.52%의 실적으로 건설중이다.

▲신한울3,4호기는 경북 울진군 덕천리에 PWR(APR1400)의 원자로형으로 용량은 1,400MWe x 2기로 2033. 10월 준공 예정이며, 한기(주)와 종합설계용역 지난해 7월 재계약하고 올 3월 주기기(원자로/터빈) 공급계약 체결, 하반기 실시승인계획 취득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처럼 완벽한 국내기술로 만들어진 신한울1호기 준공의 주역은 ▲주기기 공급사인 '두산에너지빌리타' ▲주기기 설계사인 '한전기술(SD)' ▲종합설계용역사인 '한전기술(A/E)' ▲주설비공사인 '현대건설(주)'·GS건설(주)·SK에코플랜트(주) ▲핵연료 공급체인 '한전원자력연료(주)' 등 이들 업체들이 있어 신한울 1호기 탄생이란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신한울1호기 원전!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전력공급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원전이다. 솔직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 전력공급원

인 원전은 그동안 주요 기술을 외국에 의존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2022년 5월에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무려 22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적으로 만든 국산화 기술로 탄생한 원전으로 대한민국을 원전자립국으로 우뚝하게 만든 금자탑을 쌓은 것은 실로 경이적인 일이다. 이렇게 탄생한 신한울1,2호기가 주는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 덕에 삼시건만 영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건설·운영 등 전 주기에 걸친 강력한 공급망을 확보했고,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부, 유관기관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UAE 수주 이후 체코, 폴란드 등 추가 원전 수출을 추진하며 수출원전으로서의 가치를 완벽하게 입증하고 있다.

올 4월말 기준, 국내원전 건설은 신한울2호기, 새울3,4호기와 신한울3,4호기가 건설중이다.

▲'새울3,4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암리에 PWR(APR1400)의 원자로형으로 시설용량은 1,400MWx2기로 2016. 6월 착공, 2025. 10월 준공할 예정으로 한기(주)가 종합설계용역, 두산에너지빌리타(주)가 주기를 공급하며, 삼성·두산·한화가 주설비공사를 담당,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원전연료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새울3,4호기는 87.52%의 실적으로 건설중이다.

▲신한울3,4호기는 경북 울진군 덕천리에 PWR(APR1400)의 원자로형으로 용량은 1,400MWe x 2기로 2033. 10월 준공 예정이며, 한기(주)와 종합설계용역 지난해 7월 재계약하고 올 3월 주기기(원자로/터빈) 공급계약 체결, 하반기 실시승인계획 취득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처럼 완벽한 국내기술로 만들어진 신한울1호기 준공의 주역은 ▲주기기 공급사인 '두산에너지빌리타' ▲주기기 설계사인 '한전기술(SD)' ▲종합설계용역사인 '한전기술(A/E)' ▲주설비공사인 '현대건설(주)'·GS건설(주)·SK에코플랜트(주) ▲핵연료 공급체인 '한전원자력연료(주)' 등 이들 업체들이 있어 신한울 1호기 탄생이란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신한울1호기 원전!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서 전력공급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원전이다. 솔직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 전력공급원

5분야는 비상대응 및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 이들을 개선 조치 하였다.

원전소통위원회 통해 운영실적과 현안 문제, 사업지원사업 승인내역/추진실적 등을 지역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원전 건설 후에도 지속 지역사회와 상생의 길을 걷고 있는 점이다. 한울에너지원은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에너지놀이터'는 에너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게임형 콘텐츠를 통해 에너지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자력산업과 한울원자력본부, 원자력발전원리 등이 전시돼 있고, 에너지카페는 휴식과 여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어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즐겨 찾는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울진 지역 에너지 취약층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인원 확대, 상수도 요금지원 등 지역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생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한울원자력본부는 올해 초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정지됐던 신한울3,4호기 건설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수원은 원자로설비 및 터빈발전기 공급계약을 올해 3월 완료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한 시공계약에 올해 하반기 체결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원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뛰어난 원전건설은 더욱 활기를 띠며 전세계에 널리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우리의 원전기술이 한 때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건설이란 여야간 극명한 시각차로 정치권에서 공방전을 벌이며 급기야 원성1호기를 폐기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원전소통위원회 통해 운영실적과 현안 문제, 사업지원사업 승인내역/추진실적 등을 지역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원전 건설 후에도 지속 지역사회와 상생의 길을 걷고 있는 점이다. 한울에너지원은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에너지놀이터'는 에너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게임형 콘텐츠를 통해 에너지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자력산업과 한울원자력본부, 원자력발전원리 등이 전시돼 있고, 에너지카페는 휴식과 여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어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즐겨 찾는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울진 지역 에너지 취약층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인원 확대, 상수도 요금지원 등 지역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생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원전은 우리나라가 살아 가야 할 향후 미래 먹거리 기술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원전 건설에는 여·야라는 정치성이 가미돼, 정치권이 바뀌면 에너지정책이 바뀌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여서는 결코 바람직한 원전발전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원전은 정치권이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입법화 시켜야 한다. 한수원이 원전폐쇄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우수한 원전기술개발에 더욱 몰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 세계속에 우뚝선 원전강국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 여겨보며 한울원자력발전소의 무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해 본다.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하고 있는 점이다. 원자력 안전은 우리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주민 우선채용,

요건(EUR) 인증심사를 최종 통과하여 EUR 요건을 요구하는 유럽 및 남아공 등으로의 진출기반을 확보했다.▲또한, 미국 NRC-

41건에 대한 주요 보강 내용은 분야별로 나눠, 1분야는 지진에 대한 구조물 안전성 점검2분야는 해일에 의한 구조물 안전성 점검, 3분야는 침수시 전력냉각계통 점검, 4분야는 중대사고 대응 점검,



## 5월의 밤, 경북도립교향악단이 찾아옵니다

경북도립교향악단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제175회 정기연주회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태생의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1873~1943)'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기획된 경북도립교향악단의 이번 연주회는 라흐마니노프 교향시 바위(S.Rachmaninoff - The Rock), 교향적 무곡(S.Rachmaninoff - Symphonic Dances) 등 국내 클래식 대중들이 사랑하는 라흐마니노프의 주요 작품들로 채워진다.

특히 이번 공연은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국내 최정상급 지휘자 정지용과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와 협연으로 도민들에게 한층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유료공연으로 추진된다.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지휘로 유명한 정지용은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장 겸 지휘자를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최정상급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빼어난 연주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지아 역시 주요 국제 콩쿠르를 석권해 화제가 된 바 있는 국내 최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객들의 공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유명 아티스트 초청을 통한 연주회의 질적 향상으로 수준 높은 공연예술단체의 면모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립교향악단은 도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발달을 목적으로 1997년 창단된 공공예술단으로 그간 지역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한 교향악 공연을 펼쳐왔다.

이번 연주회의 입장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시야제한석 1만원으로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경북도민 50% 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도 마련돼 있다. 입장권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며 당일 현장발권도 가능하다.

윤근수/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예자랑' 열기로 대한민국 들썩인다

### 5. 19.~28. 전국에서 '2023 공예주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2023 공예주간(Korea Craft Week 2023)'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공예주간'은 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공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시, 체험, 판매,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공예문화 축제이다.

올해 행사 주제는 '전국공예자랑'이다. 공모를 통해 정해진 이번 주제는 공예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 저마다의 공예를 자랑하고 다 함께 즐기는 흥겨운 공예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881개의 공방과 갤러리, 문화예술기관 등이 공예주간에 동참하며 총 1,835개의 프로그램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공방 체험, 공예 장터, 발달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빛을 공예주간에 동참하며 총 1,835개의 프로그램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공방 체험, 공예 장터, 발달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빛을 공예주간에 동참하며 총 1,835개의 프로그램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송헌 녹지광장에서 펼쳐지는 공예장터부터, 600년을 이어온 북촌 골목의 공방 체험, 서울공예박물관의 공예전시까지 '전국공예자랑'의 축소판을 마주할 수 있다.

문화역서울284에서는 발달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흙으로 빚어낸 창작 작품을 선보이는 '반짝반짝 작은 손'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

어린이 60명은 각자 '나의 자랑'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같다는 자유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지역주민들과 관객을 다지고 새로운 공예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울산광역시에서는 '2023 크래프트즈(Craft-us)' 프로그램으로 청년공예작가 22명이 한옥 공간에서 자신들이 만든 섬유, 도자, 목공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품을 선보이고, ▲ 경북 의성군에서는 '치유공간'이라는 제목하에, 폐목욕탕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조한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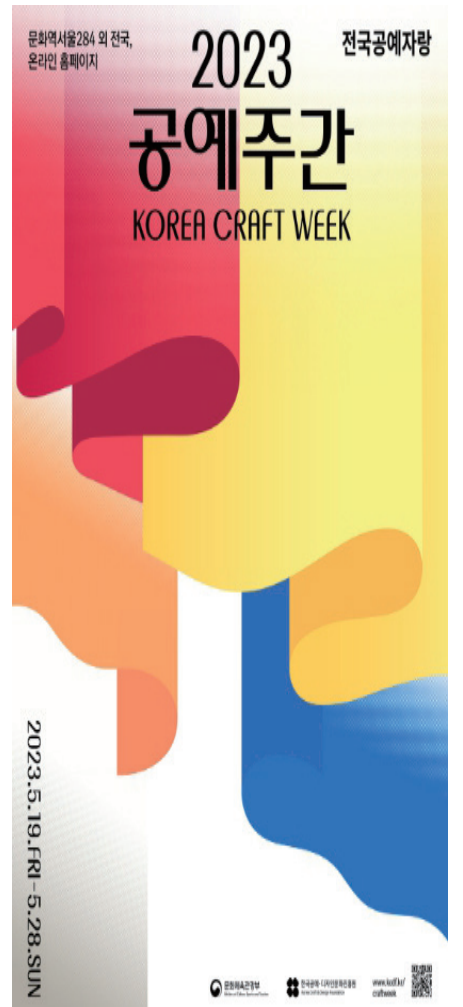
계미술관에서 공예작가 8명이 작품을 전시한다. ▲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공예체험과 마켓, 지역특산품인 안홍전빵을 함께 즐기는 '안홍전빵 마을 가든파티'가 열린다.

▲ 광주광역시 '평균크마 공예거리 축제', ▲ 강원도 원주의 한지 공예 프로그램 '한지로 펼쳐볼가(家)', ▲ 제주도의 '2023 돌가마 페스티벌 인 제주' 등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문체부 이은복 예술정책관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품격과 미학적 우수성을 담고 있는 K-공예의 매력에 전 국민이 흠뻑 빠질 수 있도록 더욱 짜임새 있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우리 공예인들이 활발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K-공예의 매력이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전국의 지역별 프로그램과 일자별 주요 행사 등 '공예주간'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 2023 GSF 강원스타트업페스티벌·제1회 춘천창업엑스포 개막

"Lifestyle Change up" 스타트업으로 삶이 바뀐다. 행사테마로 진행 애니메이션 박물관 야외 일대에서 2일간(19일~20일) 진행

춘천시는 지역의 우수한 스타트업을 만날 수 있는 '2023 GSF 강원스타트업페스티벌·제1회 춘천창업엑스포' 개막식을 5월 19일 오후 2시 애니메이션 박물관 야외무대에서 진행한다.

오는 19~20일 까지 2일간 진행되는 본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도, 춘천시, 강원혁신센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가 주관한다.

이번 개막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하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진호 춘천시장, 허영 국회의원, 한기호 국회의원, 노용호 국회의원, 윤종욱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재용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이병철 강원지방보달청장, 김기진 강원신문보존재단 이사장, 장경진 기술보증기금 춘천지점장 등 강원 지역 창업

관련 유관기관장이 대거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으로 '삶이 바뀐다. Lifestyle change up' 테마로 창작·아이디어 제품(힙스터존), F&B(글로벌존), ICT 기반 신기술(노마드존), 의료·바이오(웰니스존), 강원 특화분야(뉴딜존), 등 5개 분야로 나눠 도내 200여 개 우수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심사를 통해 참여기업의 실제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스타트업 투자 IR 피칭대회, 신청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1:1 투자미팅, 스타트업 공공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상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스타트업 라이브커머스 버스킹, 법률/금융서비스 등 스타트업 기업 컨설팅 등을 통해 참여기업에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20일 토요일에는 연에게 대

표 창업가 노홍철, 홍석천이 강연자로 출연하여 창업성공사례 등 경험 이야기를 직접들을 수 있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 된다. 19일 금요일은 "Think Global, Act Local!"이라는 주제로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EO스튜디오 김태용 대표를 비롯한 지역 창업자인 서피비치 박준규 대표, 감자밭 이미스 대표, 감자아일랜드 김규현 대표가 참여하는 스타트업포럼이 진행된다.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누구나 쉽게 스타트업을 배우는 스타트업 골든벨(OX퀴즈), 스타트업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스타트업 옥션,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마임·버블·마술·서커스 등 스타트 공연, 시민 참여 크라우드 펀딩, 스탬프 투어, 경품 추첨행사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

트와 먹거리가 시민들을 기다린다.

강원권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는 10개 기관 협의체인 'One Space Gangwon'에서 주관하는 '스타트업 메이커페어'의 액자만들기, 머그컵만들기, 키홀더 만들기, 우드 각인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이번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제1회 춘천창업엑스포를 계기로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전문 기업이 만나 창업을 대중화로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행사로 춘천 지역의 우수 창업 기업의 홍보 및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 대전 0시 축제, 지역 7개 대학교와 손잡았다

대전시는 오는 8월 개최되는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충남대학교 등 지역 7개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대학생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통해 젊은 에너지가 발산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행사를 계기로 시와 대학교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와 7개 대학교는 ▲ '대전 0시 축제' 행사 참가자 모집 및 인력 채용에 있어 지역 대학생 우선 선발 ▲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단 구성 및 행사 홍보 ▲ 일류 관광도시 대전의 위상 정립과 대학교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이날 협약에는 ▲건양대 ▲목원대 ▲배재대(총장 김옥) ▲우송대 ▲충남대 ▲한남대 ▲한밭대가 참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손잡아 준 지역 대학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잠들지 않는 대전, 깨지지 않는 재미'라는 축제 캐치프레이즈처럼, 대전이 가진 모든 재미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축제를 지역 대학교와 한 팀을 이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0시 축제는 오는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1km 도로를 통해 제4회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민호/기자

## 제4회 거창 아리미아 꽃 축제 개막



거창군은 18일 구인모 군수, 박수자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김일수 도의원, 이명주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차연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농·축협 조합장, 농업인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아리미아 꽃 축제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막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국민의례, 구인모 군수 인사말, 테이프 커팅, 주제관 관람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축제는 '세상의 봄을 모아 상상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생화 전시, 꽃 조형물 전시, 압화공예 체험, 꽃차 시음 등 꽃과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다.

또한, 플라마켓 행사와 보건의의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행사 등 다채로운 연계행사도 오는 2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화훼농가와 꽃 산업을 이번 아리미아 꽃 축제를 통해 활짝 피어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리미아 꽃 축제는 지난 2019년 화훼농가들이 100여 종의 꽃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서 시작됐으며, 이번 제4회 축제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1일까지 행사가 진행되고 꽃 전시 및 주제관은 28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장재현/기자

## 경남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세계 차의 날' 기념식 개최

경남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세계 차의 날' 행사가 오는 5월 21일 하동세계차엑스포 제2행사장 주무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계 차의 날' 기념식은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엑스포 기간 중에 개최해 행사 분위기에 하동세계차엑스포를 담아보는 것을 주요 컨셉으로 했다.

아울러 차의 생활화, 대중화 나아가서 세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출하여,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장에 입구에서부터 걸어 들어오게 되면 대한민국 시크릿 가든, 하동야생차밭을 느낄 수 있게 구성하여 행사 참가자들이 공연을 즐기며 차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자연스런 분위기의 행사를 연출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 '세계 차의 날' 행사 의미와 소개, 기념사와 축사, 세계차의날 퍼포먼스, 폐회식, 축하공연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80~90년대 인기가요였던 '풀잎사랑', '동행'을 부른 가수 최성수님과 지난 4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던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공식 사전행사 '왕의 차 진상식'에서 식전공연을 해준 팜페라 가수 '에클레시아'의 멋진 공연도 준비한다.

엑스포 조직위 관계자는 본 행사를 준비하며 '하동야생차산업이 전 산업의 분야로 다양하게 확대됨에 따라 하동군민부터 전세계인들까지 관심과 성원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



했다.

2020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세계 차의 날' 행사는 올해 4회째로 각 나라에서 활동하는 차 협회나 차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차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를 계기로 세계 차의 날이 더욱 알려져 앞으로는 전 세계 차인들이 함께하는 날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는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

관하는 차 분야에서 최초로 정부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다.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에서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라는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장재현/기자



정 치 용 × 신 지 아 × 경 북 도 립 교 향 악 단




경상북도도립교향악단 X 경주문화재단 특별기획공연

제 175 회 정기 연주회

# CHUNG CHIYONG & SHIN ZIA

*and*  
Gyeongbuk Philharmonic Orchestra

2023.5.25.Thur 19:30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

주최  경상북도 | 주관 경상북도도립교향악단  (재)경주문화재단 | 예매 티켓링크 1588-7890 경주문화재단 홈페이지 | 문의 1588-4925

티켓 R석 3만, S석 2만 시야제한석 1만(경북도민할인 50%) 초등학생이상 관람